2024.5.30(목) Signal Report



시그널리포트는 인공지능으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증시 분석 서비스이며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구독자 본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시그널리포트의 내용은 주식의 매도, 매수 등을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매매는 본인의 판단으로 하십시오.

2024.5.30(목) Signal Report

<전일 시장 정리>

전일 시장 정리는 한국에서 오직 시그널리포트만 진행하고 있는 '개인투자용 정리'입니다.

때문에 아래 내용 정도는 숙지하고 있었어야 '전일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그널리포트는 '시그널 이브닝'과 '오늘의 시리'를 통해 하루를 정리하고 있으며, 익일 서머리를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분명 실력 향상이 일어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최신의 기사를 봐도 과거와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강한 배팅을 할 수 있을까요?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은 꼭 숙지해 주세요.

[시장 정리]

●전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노조가 첫 파업을 선언하는 등 양 지수 하락 속, 반도체·화장품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 삼성 / 반디플 >

#삼성전자 노조 파업

●삼성전자 노조가 창사 이래 첫 파업을 선언해 삼성전자 -3% 하락했습니다.

#국내 상장사 유일 THC 생산

- HBM 시장규모가 2029년에 7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HBM 적층 공정에서 쓰일 수 있는 초정밀 온습도 제어장비(THC)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워트 +27% 상승했습니다.
- 엔비디아가 최근 CoWoS 패키징 공정이 적용된 차세대 AI GPU '블랙웰'을 본격 양산한다고 밝혀, CoWoS 패키징 공정에 최적화된 면레이저 장비를 개발한 레이저쎌 +11%,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TSMC의 창업자, CEO와 비공개 회동을 한다는 소식에국내 유일 TSMC VCA 협력사 에이직랜드 +7% 상 승했습니다.

#WWDC #애플 온디바이스AI 공개

- ●<u>애플이 다음달 10일 개최하는 연례 개발자 대회 'WWDC'에서 생성형 AI가 접목된 신규 서비스를 대거</u>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온디바이스AI 대장주 제주반도체 +7%, 아이티엠반도체 +5% 상승했습니다.
-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으로 중국에서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하려는 수요가 큰 가운데, 자사의 IP를 라이선스하는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칩스앤미디어 +2%상승했습니다.
- ●국내 유일 반도체 웨이퍼를 세정할 때 쓰이는 초순수 기술 개발에 성공한 한성크린텍 +17%,반도체 제조 공정상 발생되는 유해가스 정화장치인 스크러버, 안정적인 온도 유지를 제공하는 온도조절 장치인 칠리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유니셈 +15%상승했습니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 50%, 냉각용 전력에 사용

● <u>2026년이 되면 현재 23%인 수랭식 냉각시스템 비중이 57%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u> 액침냉각 관련 주 GST +6%, 케이엔솔 +3% 상승했습니다.

#삼성-레녹스 HVAC 합작법인 설립 계약

●삼성전자가 미국 대형 냉난방공조(HVAC) 설비·유통 기업인 레녹스와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u>삼성엔지니어링과 국내외 플랜트 HVAC 콘트롤 부문 2년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이삭엔 지니어링 고가 +25%, 좋가 +5%, 삼성공조 +19%, 3S +6%,삼성전자와 LG전자 등에 에어컨·냉장고 등의 부품을 공급하는 에스씨디 +9% 상승했습니다.

< 미용 / 화장품 >

●1분기 K화장품 수출 호조세에 아모레G +5%,화장품 원료 전문기업 제이투케이바이오 <mark>상한가</mark>, 기타 토니모리, 코스메카코리아 등 화장품 관련주 강세,중국 진출 1세대 화장품 기업으로 알려져있는 뷰티스킨

+22%상승했습니다.

#국내 유일 유기 자외선 차단 원료 생산

● <u>유기 자외선 차단제 원료 시장 글로벌 1, 2위 고객사에 집중 공급하고 있는 국내 유일 유기 자외선 차</u>단 원료 생산업체에이에스텍 +10% 상승했습니다.

< BIO / 의료AI >

#레켐비, 식약처 허가

- ●<u>'레켐비'가 초기 알츠하이머병 성인 환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에</u> 지난 2월알츠하이머 혈액검사 수출용 제품에 대해 태국의 정식 인허가를 받은 피플바이오 <mark>상한가</mark> 기록했습니다.
- ●바이오USA에 참가해 임상을 진행 중인 아토피 치료제 '누겔', 알츠하이머 치료제 '누세린' 등 파이프라인에 대해 기술이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 샤페론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중입자치료 시작

- ●<u>연세암병원에서 췌장암, 간암 치료에 중입자치료를 시작했다는 소식에</u>중입자가속기의 핵심 부품인 가속기용 정밀 RF제어시스템을 개발한 모비스 +9%, 전일인터뷰를 통해 CRL은 '승인 거절'이 아니라 '승인 보류'라는 점을 강조한 HLB +2%, HLB생명과학 +7% 상승했습니다.
- ●유럽의약품청(EMA)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임상 3상 IND 승인을 로피바이오와 함께 수행했다고 밝힌 씨엔알리서치 +11% 상승했습니다.

< 개별주 >

- ●LFP 배터리 국산화를 위해 공장 신설을 추진 중이며,1분기 배터리 전극공정 수주잔고만 약 1조9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피엔티 +23% 상승했습니다.
- ●블룸에너지의 고효율 연료전지 국내 공급권을 보유하고 있는 SK이터닉스 +2%,블룸SK퓨얼셀의 SOFC 용 플러밍 모듈 국내 유일 단일 벤더인 한선엔지니어링 +5% 상승했습니다.

#美, 중국산 자전거 관세 인상

- ●<u>미국이 전기자전거를 비롯해 중국산 자전거 대상 관세를 25% 인상</u>할 것이라는 소식으로 인한 반사이익 기대감에 삼천리자전거 +14% 상승했습니다.
- ●ESS 시장 성장으로 인한 증권가 호평에ESS 제품 생산 확대를 위해 부산에 ESS 전용공장과 북미법인을 설립할 계획인 신성에스티 +12% 상승했습니다.

#UAE서 LNG 선박 15억달러 수주

● <u>정부가 UAE와 CEPA 체결에 성공해,우리 기업들이 최소 6척, 15억 달러 규모의 LNG 선박을 수주하기</u>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소식에 LNG 재기화 설비 등을 판매하는 일승 +10% 상승했습니다.

QUIZ

[문제 1] 다음 빈칸에 해당하는 종목은 무엇일까요?

HBM 시장규모가 2029년에 7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HBM 적층 공정에서 쓰일 수 있는 초정밀 온습도 제어장비(THC) 시장 점유율 1위 기업**OO**상승했습니다.

[문제 2] 다음 빈칸에 해당하는 종목은 무엇일까요?

정부가 UAE와 CEPA 체결에 성공해, 우리 기업들이 15억 달러 규모의 LNG 선박을 수주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소식에LNG 재기화 설비 등을 판매하는 **OO**상승했습니다.

[문제 3] 곡물 및 사료 관련주를 3개 이상 작성해주세요.

1번 정답: 워트 / 2번 정답: 일승 / 3번 정답: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 한탑, 신송홀딩스, 대주산업, 핌스토리, 고려산업, 이지홀딩스 등

< Daily point >

'Daily Point'는 당일 증시의 시황을 설명 드리는 코너입니다.

시황을 알아야 업황을 예측할 수 있고 종목을 고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스윙과 장투에 있어서도 필수적입니다.

하루 하루 쌓아가는 'Daily Point'를 통해 주식 실력 근원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굿모닝. 시리언즈 여러분.

... 제가 꼭 해외 나가면 시장이 폭망하네요. 이번에는 1박 2일이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자정에 들어갑니다. 오늘 혹 또 빠졌는데, 금요일에 오르면... 이제는 과학으로 인정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튼 시장을 보면, 단기 대응만 가능한 상황이고요. 반도체 클래스에서 나왔던 것들도 시세를 주고 있고, 전력망 강의, 해운/조선 강의에서 나온 것들도 시세를 잘 주고 있네요. 시장이 무너질 때는 늘 돈이 몰리는 곳에 더 몰리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은 변곡점 구간에서 아직 '시그널게이지' 상 마이너스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아직 힘이 빠지는 구간+시그널게이지상 플러스 구간이라, 힘없이 빠지지 않아요. 오늘은 반등이 나올 공산이 크고, 갭하락으로 혹여 시작한다고 해도 밑꼬리를 줍니다. 원래 조정은 희망을 주면서 진행되지, 원웨이로 매일 빠지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밑꼬리를 주는 반등을 주면, 내일 안 좋을 수 있고.. 오늘 혹시 더 빠진다? 그러면 내일은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을 주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벌써 5월 30일입니다. 6월 5일~10일 사이부터는 클라이막스를 지나서, 한.. 6월 20일부터는 또 스윙잡아둔 친구들 수익 주는 구간에 들어올 거예요. 되게 선문답 같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예측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고(사실 무당이 아니라, 그냥 시그널게이지 보고 원칙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원래노하우는 끝까지 계속 전달을 하되, 그 하는 과정 전체를 확실히 느껴야, 그제서야 맞다고 알게 되거든요.. 그 전에는 무슨 소리인지 알기가 어렵다.. ㅠㅠ..

자, 정리하면.

- 1. 지금은 단기 대응만 좋은 자리다
- 2. 아스타님의 트레이딩 뷰를 놓치지 말자
- 3. 6월 20일 정도..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스윙포트를 미리 포트폴리오 만들어두자

- 4. 지금 스윙 포트 사자는 게 아니라, 6월 20일부터 안 빠지니까, 그 근방부터 살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자는 거
- 5. 그런데 결국 주식은 물려야 적당한 수량으로 사게 되더라
- 6. 발바닥 밑 각질 수준으로 사려고 하면, 각질만큼 조금만 사지더라..
- 7. 하단 변곡점 부근부터는 그냥 모으는게 맞더라
- 8. 이 변곡점 부근은 6월 10~20일 사이가 아닐까 한다







미국은 조정을 좀 받는 것 같지만, 이건 조정이 아닙니다.

아무런 타격 있는 조정이 아니에요. 그냥 날 숨을 쉬기 위해서는 들숨과 날숨이 필요한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호흡일 뿐입니다.

여전히 미국은 괜찮다. 그러나 조정이 필요한 순간마저 그냥 치고 올라가는 건, 실제로 좋은 것만은 아니다. AI발로 인한 고임금, 고소비는 '뉴머니'로 불리는 고임금 노동자와 '올드머니'로 불리는 팬데믹 머니수혜자들에게만 집중돼 있다. 가운데 중산층이 매우 힘들어지는 이 순간.. 시장은 매우 곪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는 금리인하가 되게 멀어질 수 있는데, 금리인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과제다.

멀어질수록 실제 인하가 시작될때 쇼크웨이브도 같이 올 수 있다..

그러니 금리인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 같을 때는 빤스런을 하자.

- 선거를 앞두고 1회성 이벤트 인하는 '본격적'이 아님
- 고용이 깨지면서 하는 인하가 '본격적'임.

nomad:

시그널리포트에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몇 가지 중요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지] 시그널리포트 기반 AI 뉴스 검색 서비스 '시그널서치' 베타 오픈

[공지] 'HUDSON The Signal' 알림 안내

[<u>공지] PA 베타 서비스 오픈 안내</u>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투자 시스템을 경험해보세요.

이 알고리즘 들은.. 간단해보이지만, 저희가 아니면 만들 수 없는 노하우들이 집약돼 있습니다.

단, 이는 저희가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 AI가 자동으로 합니다. 때문에 이를 그냥 종목 추천이나 리딩으로 생각하고, 무턱대고 샀다가 손해를 볼 수 있는데요.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사용자의 몫입니다.

서치를 통해 수많은 수익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담을 카페나 클래스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개발에 투자를 얼마나 해야 하나..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간단해보이지만, 매 프로젝트마다 수억원이 소요됩니다. ㅠㅠ...

잘 사용하셔서, 월급독립하는데 큰 도움 받길 바랍니다.

< TODAY ISSUE >

'Today Issue'는 당일 Signal report의 전체를 최대한 축약한 버전입니다.

전체 시그널 리포트를 보면서 공부하는게 제일 좋지만, 시간이 없거나 갑작스런 일정이 생긴 분들은 'Today Issue' 코너만이라도 보아야 합니다.

주식은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루도 놓치지 않고 1년을 공부해보면, 2년차부터는 '주식은 반복이다'라는 말을 깨닫게 됩니다.

반복의 역사를 알다보면 '다음에 생길 이벤트'를 알게 되고, 미리 오를 자리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개별주

#폭염 #전력망

에어컨 못 틀면 어쩌나...'역대급 폭염' 앞두고 '초비상'

텍사스 전력 수요는 지난 20일 7만2261메가와트(MW)로 2022년 5월 최고치(7만1645MW)를 넘어섰다. 로이터는 "텍사스의 경제 성장 및 인구 증가, 데이터센터·인공지능(AI)·암호화폐 채굴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로 올여름 전력 소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어 멕시코에선 수년간 전력 생산 인프라가 개발되지 않은 데다 물 부족으로 수력 발전도 줄면서 올여름 전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관련주: 제룡전기, 제룡산업, 일진전기,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바이오스마트, 대한전선, 가온 전선, LS에코에너지, 서남, 대원전선, 세명전기, 피앤씨테크, 광명전기, 비츠로테크, 서전기전, 지투 파워, 제일일렉트릭, 보성파워텍, 금양그린파워

#유리기판

코닝 "반도체에 유리 더 필요할 것...유리기판 사업 진출하겠다"

- 시간외: 제이티 (+9.98%)(112K) / HB테크놀러지 (+3.79%)(519K)
- 관련주: 제이티, 제이앤티씨, 유티아이, 희림

#비만 #위고비

비만치료제<u>, 황금빛 전망..."공급부족 풀렸다"</u>

비만치료제의 2030년까지 전 세계 연간 매출 추정치가 1년 전보다 50% 증가했다. 1년 전에는 2033년 까지 최고 매출 추정치가 1천억 달러(136조5천억 원) 정도였지만, 이제는 1천500억 달러(204조8천억 원)로 크게 늘었다.로이터통신은 28일(현지시간) 투자은행 BMO 캐피털 마켓 등의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투자은행 리링크도 2032년까지 연간 매출이 1천580억 달러(215조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 망했다.이들이 매출 전망치를 크게 올린 것은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Wegovy)와 일라이 릴리의 젭바운드(Zepbound) 등 비만치료제를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다 늘어나는 수요만큼 덩달아 공급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아이큐비아의 최신 전망에 따르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지난해 전세계 지출은 총 240억 달러(32조8천억 원)에 달했다. 또 이 수치는 2028년 1천310억 달러(179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 관련주: 펩트론, 넥스턴바이오, 디앤디파마텍, 드림씨아이에스, 인벤티지랩, 한독, 한국비엔씨, 일동 제약, 아이큐어,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대봉엘에스, 애니젠, 라파스, 대원제약, 고바이오랩, 대웅제약#약 배송 #규제

[단독] "약 배송 규제 풀어야"...의사들, 1년 만에 달라졌다

비대면 진료와 함께 의약품 배송을 경험한 약사 10명 중 6명이 약 배송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 등 직역 단체들이 약 배송에 강경하게 반대하는 것과는 다른 현장의 목소리가 확인된 셈이다.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의사 10명 중 7명도 현재 대면 수령으로 묶여 있는 약 배송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환자도 약 배송에 긍정적이었다. 방문 수령과 약 배송을 모두 경험한 환자의 83.7%는 약 배송에 더 만족했다. 92.7%는 약 배송이 허용된다면 비대면 진료를 더 자주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관련주: 블루엠텍, 제이브이엠

#중국 #전고체 배터리

"중국 정부, 전고체배터리 R&D에 1조원 투자...업계 최대 규모"

중국 정부가 차세대 전기차의 핵심 분야인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R&D)을 독려하기 위해 업계 최대 규모인 약 60억위안(약 1조1천2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소식통을 인용해 오늘(29일) 보도했습니다.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차이나데일리에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CATL과 웰리온 등 배터리업체와 비야디(BYD), 디이자동차(FAW), 상하이자동차(SAIC), 지리자동차등 자동차업체의 최소 7개 프로젝트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 관련주: 레이크머티리얼즈, 한농화성, 이수스페셜티케미컬, 미래컴퍼니, 필에너지, 유일에너테크, 엠 케이전자, 미코

<Signal Digest>

[경제 일반]

외국인 매도 폭탄에 코스피 2,670대 급락...코스닥도 동반 하락(종합)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2조7천826억원, 10조5천844억원으로 집계됐다.

[외환] 원/달러 환율 6.5원 오른 1,365.0원(마감)

[마켓톺] 외국인 손털자 맥빠진 코스피...10개월만 최대 순매도

이날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1조366억원)과 코스피200선물시장(1조5천424억원)에서 각각 1조원 넘게 순매도하며 주가를 끌어내렸다.코스피 현물의 경우 지난해 7월 25일(1조3천630억원) 이후 10개월여 만에 최대 규모의 순매도액을 기록했다.

외국인이 이날 가장 많이 순매도 한 종목은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였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4 천217억원어치인 557만4천200주가량을 순매도했다.이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SDI(923억원), LG 화학(853억원), 현대차(321억원), 네이버(301억원), 현대로템(279억원), 셀트리온(254억원), LIG넥스원 (220억원), PSCO홀딩스(200억원) 등을 순매도했다.반면 한미반도체(470억원), SKC(117억원), SK하이닉스 (97억원), 아모레퍼시픽(91억원), HD현대(84억원), 기아(83억원), KB금융(58억원) 등은 매수 우위를 보였 다.

<u>'삼성 파업' 한마디에...外人 4253억 매도 폭탄</u>

펄펄 나는 나스닥... 설설 기는 코스피... 왜?

국내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코스피 3000선 기대가 무르익고 있으나 무색하게도 6월이 다 돼 가도록 2800선을 넘지 못한 채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수혜가 미국, 대만과 같은 특정 국가에 집중되고 있는 데다 윤석열정부가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했던 기업 밸류업(가치제공) 지원방안에 대해 시장이 '기대 이하'로 평가하고 있는 점도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는 주요한 원인으로 거론된다.나스닥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국 증시는 활황세다. 연초 대비 28일 기준 유럽 유로스톡스50지수는 11.47%,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16.72%, 대만 자취안지수는 22.43% 상승했다. 코스피는 이 기간 1.99%의 상승률을 기록, 사실상 횡보 상태다. 코스피는 29일 들어서도 전일 대비 45.55포인트(1.67%) 하락하며 2700선이다시 속절없이 무너졌다.

"7만전자는 웁니다"...반도체 전쟁 다급한데 첫 파업선언까지 터졌다

배터리 수요 둔화 장기화... 2차전지주 줄줄이 신저가

하이투자증권 정원석 연구원은 "북미, 유럽 전기차 수요 부진, 양극재 판가 하락, 유럽과 신흥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 내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 하락 등으로 조정된 중장기 실적 전망치를 고려하면 2027년 예상 실적 기준 주가수익비율(PER) 26.1배의 밸류에이션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증권가에서는 2차전지 업황의 반등 시점을 이르면 하반기, 늦으면 내년 상반기로 내다보고 있다. KB증권 이창민 연구원은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은 전방 수요 부진에 따른 가동률 저하 및 리튬 가격 하락으로 인한평균판매단가(ASP) 급감이지만 하반기부터는 점진적 상승 흐름이 예상된다"며 "금리인하와 글로벌 경기회복, 낮은 재고 수준에 따라 보복 수요가 전망돼 실적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원석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에는 리튬 가격 안정화로 수익성이 점차 개선되겠지만 본격적 물량 회복은 내년에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주가 녹아내렸다"...'2차전지' 베팅한 개미들 '비명'

급전도 못 갚았다... 카드대출 연체율 10년 만에 최대

• 관련주: 고려신용정보, SCI평가정보, 아이티아이즈, 쿠콘

[경제/인구 구조 변화]

출생률 바닥 뚫고 지하로...1분기 첫 0.7명대 또 역대최저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0.06명 감소한 수치다. 1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이 0.8명을 밑돈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 관련주: 꿈비, 제로투세븐, 아가방컴퍼니, 메디앙스, 케이엠제약, 유엔젤, 오로라, 토박스코리아, 깨끗 한나라, 로보로보

"플라스틱에 죽음을" 해골 그림 캔에 생수...Z세대 열광

[국제-유럽]

푸틴 "서방, 우크라에 러 <u>타격 허용 시 심각한 결과"</u>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서방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야 한다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장거리 정밀 무기는 우주 정찰 능력 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이 경우 서방이 직접 개입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페스코프 대변인은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러시아 본토 공격에 동의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비우호적 행동이 아니라 적대적 행동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중국]

IMF "中 성장률 전망 5%로 상향...1분기 호조"

IMF는 '중국 경제 연례 협의' 대표단 방중을 거쳐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가 올해 5%, 내년에 4.5%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전망치는 각각 4.6%, 4.1%였다. 올해 5% 성장은 중국 정부가 양회에서 설정한 목표치에 부합한다.IMF는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데이터가 호조를 보였고 최근 정책 조치가 있었다"고 전망치를 상향한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 재정당국은 이달부터 1조위안(약 188조원) 규모의 특별채권을 발행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국유기업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을 통해 3000억위안(약 56조원) 규모의 자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제-그외]

난민촌 공습·이스라엘 탱크 도심 진격해도 '레드라인' 안 넘었다는 미국

라파 시가전 돌입에도 이스라엘 감싼 바이든...지지층은 분열

이스라엘 안보보좌관 "가자전쟁 올해 안에 안끝날 것"

• 관련주: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SH에너지화학, 대한해운, 팬오션, HMM, STX그린로지 스

네옴시티 자금난 해결?..."사우디 아람코 최대 27조 주식 매각 곧 발표"

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사우디가 이르면 이번 주 최소 100억달러에서 최대 200억달러 상당의 아람코 주식 매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아람코는 지난 2019년 IPO 당시 294억달러의 자금을 조달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IPO 기록을 세운 바 있다. 만약 아람코의 이번 주식 매각 규모가 200억달러가 되면 이 역시 세계 최대 규모의 주식 매각이 된다.

[원자재]

<u>Oil storage rise supports case for keeping OPEC+ cuts, sources say | Reuters</u> 원유 저장 증가는 OPEC+ 감산 유지를 지지하는 근거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UBS "원자재 랠리 계속...'사상 최고가' 구리·금 더 오를 것"

올해 들어 구리, 금 등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월가에서는 원자재 랠리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 청정에너지 전환 바람 등으로 산업 금속 수요는 늘어나지만 공급은 정체돼있어서다. 중동,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불안이 이어져 안전자산인 금에 자금이 더물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구리 관련주: 이구산업, 대창, 서원, 엘컴텍, 국일신동, 풍산, LS에코에너지, KBI메탈, 대한전선, 가온 전선, 대원전선 등

[정부정책]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아랍권과 첫 자유무역협정(종합)

한-UAE 간 CEPA가 발효되면 양국은 향후 10년에 걸쳐 상품 품목 수 기준 각각 92.5%, 91.2%의 시장을 상호 개방하게 된다.

아울러 무기류와 10인 이상 대형 전기차·의료기기·의약품·화장품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기계류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 및 부품, 가전제품 등도 최장 10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또 인삼류·조미김·멸치· 전복 등 우리 주요 농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보게 된다. • 관련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코츠테크놀로지, 트루윈, SNT다이내믹스, 포메탈, 우리기술, 평화산업

UAE, 한국에 8조 투자 검토...2조 규모 LNG선 수주 가시권

• 관련주: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일승, 동성화인텍, 비에이치아이, 한국카본, 대창솔루션

중동 가는 K-스마트팜...건설과 동반진출 '잭팟'

국내 스마트팜 기업들의 중동 수출이 이어지면서 건설 업체들도 동반 진출을 통한 성과를 내고 있다. 정부는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를 위한 지원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계약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스마트팜 건설에 도화엔지니어링이 참여한다는 것이다. 국내 스마트팜 수출·수주 실적이 해외 건설 수주 실적으로 연결되는 셈이다.

[CO2 / 신재생]

에어컨 못 틀면 어쩌나...'역대급 폭염' 앞두고 '초비상'

텍사스 전력 수요는 지난 20일 7만2261메가와트(MW)로 2022년 5월 최고치(7만1645MW)를 넘어섰다. 로이터는 "텍사스의 경제 성장 및 인구 증가, 데이터센터·인공지능(AI)·암호화폐 채굴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로 올여름 전력 소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어 멕시코에선 수년간 전력 생산 인프라가 개발되지 않은 데다 물 부족으로 수력 발전도 줄면서 올여름 전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관련주: 제룡전기, 제룡산업, 일진전기,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바이오스마트, 대한전선, 가온 전선, LS에코에너지, 서남, 대원전선, 세명전기, 피앤씨테크, 광명전기, 비츠로테크, 서전기전, 지투 파워, 제일일렉트릭, 보성파워텍, 금양그린파워

[미래차]

세코닉스 "전장용 렌즈 초격차로 시장 선점"

회사는 2002년 국내 최초로 모바일용 카메라 렌즈를 개발·생산해 삼성전자에 공급했다. 현대자동차 팰리 세이드에 장착된 카메라 렌즈 역시 세코닉스가 만들었다. 2018년에는 미국 엔비디아가 제조한 자율주행 차용 보드에 사용되는 카메라 모듈 샘플을 납품한 이력도 있다.세코닉스는 국내 광학부품기업 가운데 전장용 렌즈와 모듈을 함께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다.

"중국 정부, 전고체배터리 R&D에 1조원 투자...업계 최대 규모"

중국 정부가 차세대 전기차의 핵심 분야인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R&D)을 독려하기 위해 업계 최대 규모인 약 60억위안(약 1조1천2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소식통을 인용해 오늘(29일) 보도했습니다.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차이나데일리에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CATL과 웰리온 등 배터리업체와 비야디(BYD), 디이자동차(FAW), 상하이자동차(SAIC), 지리자동차등 자동차업체의 최소 7개 프로젝트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 관련주: 레이크머티리얼즈, 한농화성, 이수스페셜티케미컬, 미래컴퍼니, 필에너지, 유일에너테크, 엠 케이전자, 미코

[영상] 피엔티, 美대형 고객사로부터 배터리 장비 물량 수주

피엔티가 건식 전극공정용 장비 관련 대형 수주를 따냈다. 미국의 글로벌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를 고객 사로 확보했다. 이수환 전문기자는 지난 28일 방송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올해 1분기 에 계약이 성사되었다"며 "규모는 수백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이는 1차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테슬라의 기가 텍사스 공장에 장비가 공급될 예정이며, 추가 발주도 기대되고 있다.이번에 공급된 장비는 테슬라의 건식 전극용 장비로, 이는 기존 습식 공정보다 생산성이 높고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이수환전문기자는 "테슬라가 건식 전극을 대규모로 양산하는 것은 매우 혁신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삼성전자 / 반도체]

1분기 글로벌 낸드 매출, 전 분기 대비 28% 증가... "SSD 주문 확대 영향"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1분기 전 세계 낸드 매출은 작년 4분기보다 28.1% 증가한 147억960만달러(약 20조원)를 기록했다.트렌드포스는 "2월부터 인공지능(AI) 서버에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대량 주문이 발생했다"며 "PC와 스마트폰 고객들도 가격 상승세관리를 위해 재고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삼성전자의 1분기 낸드 매출은 54억달러(약 7조원)로전 분기보다 28.6% 증가했다. 고객사들이 재고를 늘리고 기업용 SSD 주문이 늘었다. 삼성전자의 낸드시장 점유율은 36.7%로 1위 자리를 유지했다.SK하이닉스와 자회사 솔리다임의 1분기 매출은 32억7200만달러(약 4조원)로 전 분기 대비 31.9% 늘었다. 시장 점유율도 21.6%에서 22.2%로 상승해 2위를 지켰다.

AI서버용 SSD 주문 급증에 1분기 낸드 시장 28%↑..."2분기도 성장"

<u>엔비디아發 AI파티...초대장 받지 못한 삼성전자</u>

모건스탠리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엔디비아발 AI 특수에 따른 수혜주에 SK하이닉스를 포함시켰다. 모건스탠리는 향후 SK하이닉스의 주가 추가 상승 여력이 33%에 달한다고 평가했다.모건스탠리는 SK하이닉스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하며 "엔비디아의 고성장과 주가 상승은 시장의 투자 수요가 얼마나 높은지 말해준다"며 "아시아 AI 공급망 주식은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다"고 썼다.삼성전자는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AI 수혜주 추천 목록에서 빠졌다. 삼성전자가 아직 HBM 양산 체제를 갖추지 못하면서 추천 종목에서 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기흥캠 방사선 피폭 사고 하루 지나서 인지

코닝 "반도체에 유리 더 필요할 것...유리기판 사업 진출하겠다"

- 시간외: 제이티 (+9.98%)(112K) / HB테크놀러지 (+3.79%)(519K)
- 관련주: 제이티, 제이앤티씨, 유티아이, 희림

말레이도 반도체 강국 도약 노린다..."150조원 투자 유치 목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최소 5천억링깃(약 145조원) 규모 투자를 유치해 반도체 설계, 고성 등 반도체 패키징, 반도체 제조 장비 산업 등에 투입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단독] 티이엠씨, 美 마이크론에 '반도체 핵심' 네온가스 전격 공급..."현지 독점 리사이클링도 논의" 티이엠씨(425040)가 국내 대표 반도체 '쌍두마차'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넘어 미국 마이크론까지 고객사를 확장한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티이엠씨가 미국 마이크론에 반도체 필수 원료인 네온(Ne)가스 초도 물량을 공급 완료했다. 아울러 네온가스 재활용과 관련해서도 힘을 합친다는 계획이다.

[AI/ 로봇]

<u>라온텍 "AI 기대감 확대, 'AR 글래스=AI 글래스' 인식 확산"</u>

김보은 대표는 "이달 중순 오픈AI의 챗GPT-4o, 구글의 프로젝트 아스트라 등 AI 관련 대형 발표가 2개 있었다"며 "챗GPT-4o는 사용자에게 수학을 가르칠 수 있고, 구글 프로젝트 아스트라는 스마트폰을 통

해 사용자와 상호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경우 모두 사용자들이 AR 글래스를 착용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AI 글래스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이어 "AR 글래스를 착용한 사용자가 보는 것을 AI도 보기 때문에, AR 글래스에 카메라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AR 글래스는 디스플레이와 광학 기술 모두 필요 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하트러브 메타 부사장이 'AR 디스플레이는 엘코스가 먼저 간다'고 밝혔다"며 "엘코스가 외부광원으로 발광다이오드(LED)를 주로 사용해왔지만, 외부광원을 레이저로 바꾸면 더 밝은 디스플레이 구현이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IT/기술]

"차세대 통신이 완전 자율주행車 핵심 열쇠"

'초연결 시대 게임체인저 넥스트 G' 세션 발표자들은 차세대 통신이 모빌리티뿐 아니라 헬스케어, 도시 인프라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킬 '키'가 될 것으로 봤다. 류탁기 SK텔레콤 인프라기술담당 부사장 은 "6세대(6G) 이동통신 시대엔 지상망 한계를 극복하고 상공망까지 쓸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AI 올라탄 애플...아이폰 올라탄 부품주 랠리

애플이 AI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주가가 급등하자 국내 부품주도 수혜를 입고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일 (현지 시간)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AI에 상장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공개될 아이폰16 시리즈에 애플의 AI 기술이 대거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년보다 휴대폰 교체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다.

LG이노텍과 비에이치가 아이폰 판매 증가로 직접적인 실적 개선주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LG이노텍은 아이폰16 시리즈에서 화소 수가 상향된 초광각카메라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손떨림보정부품 (OIS)도 추가로 적용해 평균공급단가가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애플에 회로기판을 공급하는 비에이치 역시 애플 제품 내 점유율 증가와 공급단가 상승이 예상된다. 또한 아이패드에도 부품을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다.

[가상 자산 / 가상 현실]

7월 법 시행 앞두고...금융위, 가상자산 전담 조직 신설 추진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IP/엔터]

서울 찾은 사우디 e스포츠 회장 "한국 게임업계와 협력 확대"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PUBG) 시리즈를 즐기고, T1의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좋아하는 게이머기도 하다.

빈 반다르 왕자는 "e스포츠는 사우디가 글로벌 게임 산업과 통하는 관문이자, 교육·관광·공연·외식산업까지 결합한 복합 산업"이라며 사우디가 게임·e스포츠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BIO / 의료AI]

건강에 돈 쓰는 베이비<u>부머...제약·바이오株 시간 온다</u>

허혜민 키움증권 책임연구원은 29일 '헬스케어 골드러쉬, 인구 구조와 부의 대전환'이라는 제목의 하반기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전망 보고서에서 "슈퍼에이징 시대, 베이비부머가 쌓아온 자산이 헬스케어산업

에 몰리고 있다"며 셀트리온, 유한양행, 덴티움, 한미약품 등을 추천했다.그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진 선 진국에서는 의약품 청구액이 급증하고 있다"며 "미국 베이비부머(1946~1964년생)의 최대 관심사인 헬 스케어 분야에 쓰는 비용이 늘어날수록 자녀에게 상속하는 재산은 줄어든다"고 평가했다.

비만치료제, 황금빛 전망..."공급부족 풀렸다"

비만치료제의 2030년까지 전 세계 연간 매출 추정치가 1년 전보다 50% 증가했다. 1년 전에는 2033년 까지 최고 매출 추정치가 1천억 달러(136조5천억 원) 정도였지만, 이제는 1천500억 달러(204조8천억 원)로 크게 늘었다.로이터통신은 28일(현지시간) 투자은행 BMO 캐피털 마켓 등의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투자은행 리링크도 2032년까지 연간 매출이 1천580억 달러(215조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 망했다.이들이 매출 전망치를 크게 올린 것은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Wegovy)와 일라이 릴리의 젭바운드(Zepbound) 등 비만치료제를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다 늘어나는 수요만큼 덩달아 공급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아이큐비아의 최신 전망에 따르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지난해 전세계 지출은 총 240억 달러(32조8천억 원)에 달했다. 또 이 수치는 2028년 1천310억 달러(179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 관련주: 펩트론, 넥스턴바이오, 디앤디파마텍, 드림씨아이에스, 인벤티지랩, 한독, 한국비엔씨, 일동 제약, 아이큐어,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대봉엘에스, 애니젠, 라파스, 대원제약, 고바이오랩, 대웅제약

퀀타매트릭스 "패혈증 균 잡는 항생제 바로 알려줘"

퀀타매트릭스가 항균제 감수성 검사 의료기기인 디라스트(dRAST) 수출 확대에 본격 나선다. 50여 종의 항생제 중 패혈증 환자에게 맞는 약을 5~7시간 안에 알려주는 제품이다. 여기에 더해 애초에 핏속에 균이 있는지 없는지, 그 균이 무엇인지까지 알려주는 '원스톱' 의료기기도 3년 내 선보일 계획이다.권성훈 퀀타매트릭스 대표(사진)는 최근 "작년 4분기에만 유럽에서 디라스트를 공급하기로 한 병원이 30여 곳 추가됐다"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디라스트 허가를 받기 위한 현지 임상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u>[단독] "약 배송 규제 풀어야"...의사들, 1년 만에 달라졌다</u>

비대면 진료와 함께 의약품 배송을 경험한 약사 10명 중 6명이 약 배송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 등 직역 단체들이 약 배송에 강경하게 반대하는 것과는 다른 현장의 목소리가 확인된 셈이다.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의사 10명 중 7명도 현재 대면 수령으로 묶여 있는 약 배송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환자도 약 배송에 긍정적이었다. 방문 수령과 약 배송을 모두 경험한 환자의 83.7%는 약 배송에 더 만족했다. 92.7%는 약 배송이 허용된다면 비대면 진료를 더 자주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관련주: 블루엠텍, 제이브이엠
 - ∘ [특징주]블루엠텍, 비대면 진료 필수 약배송 허용..여당 총선 정책 공약 진행↑

[정치]

<u>윤석열 대통령, 세월호법 수용... '野 강행 4법'은 거부권</u>

홍준표 "우리가 뽑고 만든 대통령, 우리가 보호해야...곤경 몰아넣는 건 옳지 않아"

민주당에 각 세우는 조국혁신당..."종부세 손질, 尹정부에 가세하는 꼴"

[M&A / 주요 공시]

자연과환경, 240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회계기준 위반' 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4억9천290만원

금융위원회는 29일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4억9천29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 전일 시장 주도 종목 >

'전일 시장 주도 종목'은 거래일 기준 전(前)일 일어난 주요 종목과 그에 따른 이벤트를 다룬 콘텐츠입니다.

시장에서 주가를 움직이는 이벤트는 무엇이었는가를 알 수 있으며, 해당 이벤트가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강도인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해당 종목이 '왜 올랐는지'를 아는 것은 주식의 시작입니다.

해당 종목을 오르게 한 이슈는 일회성이지 않습니다. 종목이 상폐되기 전날까지도 종목을 오르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합니다.

차트가 좋을 때, 해당 종목의 이슈가 살아 있는 경우 80% 이상의 확률로 다시 시세를 주게 됩니다.

- 500억봉

- 150억봉

종목명	현재가	CHHI		L일봉H	거래량	거래대금	시가총액	메모
< 삼성 / 반디플 >								
삼성전자 🥈	75,200	7 2,400	3.0		30,244,875	2,312,008	,489,276 시	H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29일 파업을 선언
워트	11,790	2,520	27.1		14,358,557	160,486	1,901 삼	s성전자와 개발한 THC 국산화 성공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차 협력사로 등록되어 납품
레이저쎌 🥈		1,170			2,183,538	24,629	1,010 Co	oWoS 패키징 공정에 최적화된 면레이저장비 개발 / TSMC에 면레이저장비를 공급 이력
에이직랜드					897,377	45,247	5,382 SL	나노와 7나노를 개발 양산할 수 있는 설계기술력과 설계경험을 보유 / ARM과 TSMC의 파트너
제주반도체					8,155,709	189,458		CI바이스AI에서 핵심칩인 LPDDR을 설계하는 국내 대표 팹리스
아이티엠반					694,363	16,114		CI바이스 AI와 배터리 발열 관리의 대표적인 수혜주 / 3분기 흑자전환 전망
칩스앤미디			2.5		2,055,948	53,663		PCI바이스 AI에 최적화된 IP를 자사가 개발 중 / 회사의 IP를 라이선스하는 프로젝트가 증가 중
한성크린텍		_	17.3		13,988,889	42,291		RH 유일 반도체 초순수 기술 개발 성공 / 국내 반도체 기업에 생산 시설 구축, 시운전 단계
유니셈	11,940 🛚	_	15.8			302,976		I모리 마이그레이션과 HBM TSV향 칠러 및 스크러버 공급에 따른 효과로 실적 개선 예상
GST	48,250				1,867,790	91,438		H세대 2상형 액침냉각기 시제품 개발 완료 / 삼성전자,하이닉스,TSMC,마이크론 등 고객사
케이엔솔	19,590		3.0		3,076,064	63,581		H브머사와 협력해 국내 이머전쿨링시장에 진출한 액침냉각 솔루션 보유
미삭엔지니					13,544,764	281,637		k성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국내외 플랜트 HWAC 콘트롤 부문에 대해 2년간 독점계약
삼성공조 🍟	10,550	_			7,026,106	74,571	857	
38	2,935		6.5		15,743,678	45,974		계 최초로 칩렛 캐리어 개발 / 삼성에 웨이퍼캐리어 공급 중
에스씨티	1,630 🛚	143	9.6	<u>+</u>	16,842,747	27,543		k성전자와 LG전자 등에 에머컨,냉장고 등의 부품 공급
-								
아모레G		1,900			343,269	11,938		요 종속회사는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에뛰드, 아모스프로페셔널, 에스쁘아, 오설록 등
아모레퍼시					351,606	64,571		분기 수익성 개선 / 미주 등 서구권서 큰 폭 성장
제이투케이					1,773,088	53,120		F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등과 바이오 기반 화장품 원료 공동 개발 / 2분기부터 공급 시작
토니모리					4,633,636	49,565		사장품 브랜드샵 전문기업으로 기초 및 색조 화장품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
아이패밀리		_			983,194	38,243		대 최대실적을 5분기 연속 경신 / 일본,미국,유럽,인도 시장 등의 지속적인 성장
코스메카코					395,650	20,027		초화장품의 ODM(생산자 개발방식) 제조 및 OEM(주문자 상표부착 방식) 제조가 주요 사업
한국화장품					1,784,044	87,282		초화장품과 색조화장품을 비롯 1,600여 종류를 생산하는 OEM 및 ODM 화장품제조 전문기업
뷰티스킨	-	4,400			.,,	100,220		사장품 분야의 브랜드, 제조, 유통 라인을 내재화한 종합 뷰티 기업 / 중국 진출 1세대
에이에스텍	50,400 4	4,800	10.5		1,201,272	58,324		RH 유일 유기 자외선 차단 원료 생산 / 글로벌 1, 2위 고객사 2곳에 집중적으로 공급
===uo.o	0.000	occ	20.0		0.000.011	10,000		< BIO / 의료AI >
피플바이오	3,750		29.9		3,060,711	10,687		향소하이머병 혈액검사 제품의 글로벌 진출 순항 기대
샤페론	2,290 4 4,160 4		29.7		11,882,233 26,377,112	26,118 118,577		HOLS USA 참가해 신약 기술 이전 논의
모비스 HLB생명과	10,750		7.2		4,599,827	48,134		대 최초로 가속기용 LLRF 제머시스템 개발에 성공 등국 항서제약이 오는 31일까지 FDA로부터 보완요구서한(CRL)을 추가로 수령할 예정
HLB@BJF	66,100		2.1		6,560,217	424,580		5국 항세제막이 오는 허릴까지 FDA로부터 보완요구세한(CRL)을 추가로 수명할 예정 5국 항세제약이 오는 31일까지 FDA로부터 보완요구세한(CRL)을 추가로 수령할 예정
MU알리서	1,810		11.5		55,423,337	105,417		g국 영제제국이 오는 이월까지 FUR도부터 모진요구제인(ML)을 추가도 구성을 베성 암럽의약품청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임상 3상 IND 승민을 로피바이오와 함께 수행
깨엔걸디서	1,010 2	107	11.5		33,423,337	100,417	1,020 ਜ	·합니작품성에 마일이나 마이소시킬이다 담성 38 MW 중인을 도피마이소와 함께 구행 - < 개별주 >
및 개발부 2 Ⅲ엔터 및 60,300 ▲ 11,300 23.0 ■ 5,484,629 325,084 13,713 1분기 배터리 전국공정 수주잔고 사상 최대치								
SKOI터닉스	_	_	2.8		6,553,425	181,855		문기 메디디 선칙용용 구구선과 자공 최대자 클룸메너지사의 연료전지 국내 공급권 보유 / 밸류체인 통합 솔루션 공급자 역할 수행
삼천리자전	5,720		14.4		5,384,125	31,660	759	· 스테니저지크 근표근지 그네 이러한 그룹 / 글프웨스 등을 글푸인 이러시 그글 구청
신성에스EI		4,350			2,083,794	79,451		SS 신규 수주 확대 및 제품 고도화를 통해 비중 확대 / 북미시장 진출
일승	3,170		10.0		8,896,034	29,024		보도처리장치, 스크러버, LNG재기화설비 등 선박 장비,부품 제조 및 소재 판매
20	0,110 2	230	10.0		0,000,004	20,024	514 군	교사다이사, 그그러마, 대에게기외르마 이 먼저 이미,구점 제고 중 고제 판매

< to the DEEP >

* 위에서 언급한 해설 외에 조금 더 알면 좋을 내용을 넣는 코너입니다

< 삼성 / 반디플 >

●삼성전자 (-3.09%)(29620K)

삼성전자 노조, "단계 밟아 파업 확산하겠다"

삼성전자 노조 "즉각 파업" 선언...1969년 창사 이래 처음

삼성전자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29일 파업을 선언했다.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은 1969년 창사 이후 처음이다."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힌 노조는 내달 7일 조합원 2만80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으로 첫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워트 (+27.18%)(13989K)

<u>워트, 삼성전자와 HBM 핵심장비 냉각장치 THC 공동 개발...HBM 확대에 THC 상장사 유일 삼성전자 SK</u> 하이닉스 채택

글로벌 HBM 시장규모는 2022년 7.6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9년까지 매년 25.47% 성장하여 49.03억 달러(약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워트의 제품 중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THC(초정밀 온습도 제어장비)는 반도체 포토공정 중 웨이퍼 표면에 PR용액을 도포하고 건조하는 트랙 (Track)장비에 장착되어 PR(Photo Resist)코팅이 이뤄지는 코팅(Coating)공정과 노광공정을 마치고 나온웨이퍼를 현상(Developing)하는 공정의 각 챔버에 파티클, 초정밀 온습도(온도 ±0.05℃, 습도 ± 0.5%), 미량가스(NH3, ACID등)가 제어된 공기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트랙공정 중 하나인 베이크(Bake)공정에 초정밀 항온수를 공급하고 있다.워트 측은 "외국 장비에 의존하던 THC 장비를 성공적으로 국산화했으며,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인정받아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차 협력사로 등록되어 납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국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사이트 외에도 해외사이트인 삼성전자 서안 법인과오스틴법인에도 납품을 하고 있으며, 향후 테일러 법인에도 납품할 계획"이라며 " SK하이닉스 우시 법인에도 납품을 하고 있으며, 중국내 LCS Agent를 통해서 중국내 영업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레이저쎌 (+11.25%)(2155K)

(24.05.02)[단독] 레이저쎌, 美 인텔·마이크론에 'LC 본더' 첫 공급 임박

(24.05.23)[특징주] 레이저쎌, 엔비디아 차세대 AI GPU '블랙웰' 본격 양산소식에...핵심 패키징 기술 개발 사↑

CoWoS 패키징은 여러 개의 메모리 반도체와 로직반도체를 실리콘 기반 '인터포저'라는 서브스트레이트 판 위에 초미세·초정밀로 본딩하는 방식을 채용한다. 기술의 핵심은 인터포저 위에 메모리반도체와 로직 반도체를 평면으로 정렬하기도 하고 수직으로 쌓는 것이다.또한, 레이저쎌은 과거 TSMC에 면레이저장 비를 공급한 이력도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에이직랜드 (+7.35%)(891K)

[영상] 사피온 잃고 AI 유니콘 디노티시아 고객사로 잡은 에이직랜드

(23.10.27)[IPO] 에이직랜드, TSMC·ARM 업고 美 팹리스 시장 진출 본격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TSMC 창업자·CEO 비공개로 만난다

대만언론 중국시보는 한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대만을 방문한 황 CEO가 조만간 모리스 창 TSMC 창업자, 웨이저자 TSMC CEO를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번 만남으로 엔비디아의 AI(인공지능) 칩을 독점 생산하는 TSMC와 엔비디아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더 공고히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른 소

식통은 황 CEO가 내달 3일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과도 비공개로 만나 협력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주반도체 (+7.33%)(8115K) /아이티엠반도체 (+5.21%)(691K)

한 달 간격으로 맞붙는 삼성-애플, 누가 AI로 웃을까

애플이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이번 OS 발표에서는 AI 기능 등이 대거 추가되는 iOS18 업데 이트가 핵심일 것으로 전망된다. 갤럭시S24 시리즈 흥행의 주역인 온디바이스 AI 서비스가 애플 기기에도 구현된다는 내용의 발표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애플 음성 비서인 '시리'도 애플의 대규모언어모델 (LLM)을 기반으로 업그레이드 되며, 더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과 오픈AI 등 AI 개발사와의 협업도 공식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칩스앤미디어 (+2.59%)(2043K)

<u>칩스앤미디어 "美中 반도체戰 속 엔비디아 대체 움직임 파고 들 것...온디바이스 AI 최적화 기술로 입지 강화" [투자360]</u>

칩스앤미디어 측은 "현재 데이터센터에서 사용하는 AI 칩은 대부분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사용하지만, 미중 반도체 전쟁으로 인해 중국에선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면서 "중국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보안 이슈로 자체 클라우드를 구축하려는 국내외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어 칩스앤미디어의 IP를 라이선스하는 프로젝트가 증가 중"이라고 강조했다.칩스앤미디어는 작은 사이즈와 면적 대비 높은 효율, 저전력 기술이 중요한 온디바이스 AI에 최적화된 IP를 자사가 개발하고 있는 만큼 관련 시장에 대한 입지를 강화 중이라고도 소개했다. 칩스앤미디어는 "이미 ARM 기반 PC용 칩에 IP를 공급 중"이라며 "ARM 기반 PC는 엣지 컴퓨팅의 증가, 성능 향상,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생태계를 확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사의 IP 라이선스 기회도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칩스앤미디어는 작년 자체 개발한 산경망처리장치(NPU) 라이선스 매출이 올해부터 발생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캐시 카우인 비디오 기술과 함께 IP를 다변화해 매출 증대를 이룰 것"이라고 했다.

●한성크린텍 (+17.32%)(13897K)

(24.03.20)[클릭 e종목]"한성크린텍, 반도체 국산화 이슈에 초순수 부각"

(24.05.27)'반도체 생명수' 국산화 내건 한성크린텍, 밸류업 '이제부터'

반도체 제조에는 불순물을 제거한 깨끗한 물(초순수)이 필요한데요, 반도체의 시작점인 웨이퍼를 생산할 때부터 물로 세척하는 작업을 수차례 반복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초순수가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는 쿠리타(Kurita), 오르가노(Organo), 노무라(Nomura) 등 일본 기업이 초순수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한성크린텍이 국산화하겠다고 뛰어든 것입니다. 이미 개발이 마무리돼 국내 반도체 기업 공장 내에 초순수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시운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한성크린텍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초순수기술 개발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국내 소재·부품·장비 업체, 반도체 기업과 협력하며 'K-반도체' 밸류체인내 중요한 역할을 해낼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유니셈 (+15.81%)(25385K)

(24.04.16)[특징주]유니셈, 삼성전자 美 보조금 가장 빠른 수혜...HBM 장비도 ↑

SK증권은 유니셈이 미국 투자 재개를 시작으로 분위기 반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기존 9000원에서 130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이동주 SK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마이그레이 션과 국내 고객사 HBM TSV향 칠러 및 스크러버 공급에 따른 효과로 전년 대비 실적 개선이 예상된 다"며 "전방 고객사의 공격적인 TSV 증설 계획을 감안하면 올해 전공정 투자의 빈자리를 후공정이 일부 채워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니셈 전자공시,주력 생산품목으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상 발생되는 유해가스 정화장치인 스크러버(Scrubber), 반도체 Main 공정상 안정적인 온도 유지를 제공하는 온도조절 장치인 칠러(Chiller) 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GST (+6.75%)(1851K) / 케이엔솔 (+3.00%)(3046K)

(24.03.12)[특징주] GST·케이엔솔, 'AI 반도체 1위' 엔비디아 차세대 서버 액체냉각 도입에 수혜감↑ [특징주] 데이터센터 성장에 액침냉각 '들썩'...GST·케이엔솔 급등 액침냉각 시스템은 특수용액을 통해 데이터센터의 열을 식히는 방식으로, 공기를 순환시켜 열을 낮추는 공랭식에 비해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가진다. 골드만삭스에서는 2026년이 되면 현재 23%인 수랭식 냉각시스템 비중이 57%로 높아질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다.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전기먹는 하마인 AI 데이터센터는 서버 가동의 전력 소모도 크지만,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데 막대한 전력을 소비한다"며 "전력 효율화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AI시대 최종 주도권은 열 관리 업체가 차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삭엔지니어링 (고가 +25.63%, 종가 +5.76%)(13432K) / 삼성공조 (+19.89%)(6892K) / 3S (+6.53%)(15453K)

[특징주]이삭엔지니어링, 삼성 66조 대형 HVAC 시장 본격 참여..HVAC 콘트롤 독점 공급 부각↑ 삼성전자는 전일 레녹스와 합작법인 '삼성 레녹스 HVAC 북미 아메리카'를 설립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가 지분 50.1%, 레녹스가 나머지 49.9%를 보유한다. 투자 규모는 수천억원으로 추정된다.합작법인은 올 하반기 미국 텍사스주 로어노크에서 출범한다.이삭엔지니어링은 지난해 1월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국내외 플랜트 HVAC 콘트롤부문에 대해 2년간 입찰 없이 독점 계약을 하게 되는 프레임 어그리먼트(Frame agreement)를 체결한 바 있다

●에스씨디 (+9.62%)(16554K)

[특징주]에스씨디, 삼성전자 '317조' 냉난방 공조 시장 노려...부품 공급 부각↑

에스씨디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캐리어 등에 에어컨·냉장고 등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아이스메이커와 스텝밸브는 각각 글로벌 시장점유율 70%, 88%를 차지하고 있다. BLDC모터는 국내시장에서 43%를, 세 계시장에서 10%를 점유하고 있다.

< 미용 / 화장품 >

●아모레G (+5.60%)(342K), 아모레퍼시픽 (+4.37%)(350K) / 제이투케이바이오 (+29.98%)(1772K) / 토니모리 (+13.21%)(4585K) / 아이패밀리에스씨 (+11.97%)(978K) / 코스메카코리아 (+8.06%)(393K) / 한국화장품제조 (+7.96%)(1765K)

스타트업 수출 6년새 9배 늘어...화장품·반도체가 활로

(24.05.28)불티나게 팔리는 K화장품... 1분기 중소기업 수출 일등공신

지난 1분기(1~3월) 중소기업 수출이 277억6000만달러(약 37조8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 화장품이 중국, 미국 등에서 불티나게 팔린 덕이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의 '2024년도 1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작년 4분기(+1.6%)부터 플러스로 전환된 중소기업 수출은 올해 1분기도 증가를 기록하며 2분기 연속으로 반등세를 이어갔다.수출 품목 1위 화장품의 경우 중국에 2억8000만달러, 미국에 2억7000만달러, 일본에 1억7000만달러를 각각 수출하는 등 주요 8개국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이 기간 10대 주요 수출국 중 미국, 베트남, 러시아, 홍콩, 인도, 멕시코, 대만 등 7개 국가에서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뷰티스킨 (+22.00%)(4090K)

(23.07.17) 뷰티스킨, 청약 경쟁률 2316.13대 1...청약 증거금 3조원 넘게 몰려

뷰티스킨은 화장품 브랜드, 제조, 유통 사업을 내재화한 종합 뷰티 전문기업이다. 중국 진출 1세대 화장품 기업으로 국내 유수의 브랜드를 중국 및 아시아 권역에 유통하면서 K-뷰티 열풍에 일조했다. 뷰티스킨의 주요 브랜드로는 더마코스메틱 컨셉인 원진브랜드와 비건 및 자연주의 컨셉인 유리드 브랜드 등이 있다.각 사업 부문별 고른 매출 비중으로 안정적인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뷰티스킨은 유통 인프라 확보에 성공해 2019년 글로벌 대형 리테일 TJX의 공식 벤더로 지정됐다.

●에이에스텍 (+10.53%)(1184K)

[<u>특징주]에이에스텍, UV 차단원료 세계적 '대세기업'...독점공급에 4배 증설 '바쁘다 바빠'</u>

에이에스텍은 국내 유일의 유기 자외선 차단 원료 생산업체다. 자외선 차단제 원료는 크게 유기 자외선 차단제와 무기 자외선 차단제가 있다. 에이에스텍의 주력 생산 제품은 유기계열 자외선 차단제 원료다. 무기계열보다 사용감이 좋고 제형 적용 범위가 넓다. 에이에스텍의 DHHB는 알칼리성 원료를 사용해 BASF사의 DHHB 대비 공정을 간소화해 원가를 약 40% 절감했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에이에스텍은 유기 자외선 차단제 원료 시장 글로벌 1, 2위 고객사 2곳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 BIO / 의료AI >

●피플바이오 (+29.98%)(3059K)

피플바이오, 상한가...'알츠하이머 조기진단' 태국 수출 본격화에 실적개선 기대감↑

'치매신약' 레켐비, 연내 한국 상륙...보험 급여적용 언제?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일본 에자이와 미국 바이오젠이 공동 개발한 '레켐비'(성분명 레카네맙)는 경도인지장에 및 경증의 알츠하이머병(이하 초기 알츠하이머병) 성인 환자 치료제로 지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했다.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레켐비를 승인한 네 번째 국가가 됐다.환자 사용의 관건은 보험급여 적용 여부가 될 전망이다. 1년 약값 수천만원 상당의 레켐비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처방되기 위해선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아야 한다.식약처는 보험약가 평가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을주기 위해 레켐비 허가에 앞서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를 건강보험시사평가원과 미리 공유했다. 보험 심사가 빨리 이뤄지고 환자가 신속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회사는 급여 여부와 상관없이 올 연말에는 레켐비를 국내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샤페론 (+29.75%)(11875K)

샤페론, 바이오 USA 참가해 신약 기술 이전 논의

샤페론에서는 미국 자회사 허드슨 테라퓨틱스의 재니스 맥코트 대표를 주축으로 한 사업개발팀이 참석해 기업들을 만나 샤페론의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기술이전, 신약공동개발, 투자 등에 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샤페론이 기술이전을 고려하는 파이프라인으로는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고임상 2상을 진행 중인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 '누겔'을 비롯해, 국내에서 임상 1상 시험 진행 중인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누세린', 지난달 미국암연구학회(AACR)에서 기술적 우수성을 발표한 나노바디 항체 '파필리시맙' 등이 있다. 나노바디 항체는 기존 항체 대비 규모가 10분의1 정도로 작아 표적 조직에 더쉽게 침투할 수 있다.

●모비스 (+9.47%)(26224K)

[<u>특징주</u>] 모비스, 연세암병원 중입자 암치료 본격화 '췌장암・간암 치료 착수'...전국 지자체 도입 추진에 '강세'

연세암병원, 췌장암·간암 치료에 회전형 중입자치료기 가동

난치암으로 불리는 췌장암, 간암 치료에 중입자치료가 시작됐다.연세암병원은 28일 췌장암 3기 환자 김모씨(47세, 남)를 대상으로 회전형 중입자치료기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치료는 주 4회씩 총 12회로 3주간 진행된다.간암 3기 진단을 받은 이모씨(73세, 여)도 같은 날 중입자치료를 시작했다. 총 4회 조사를 받는 이씨의 치료는 일주일 만에 끝난다.

●HLB생명과학 (+7.29%)(4573K), HLB (+2.16%)(6501K)

(24.05.21)HLB 리보세라닙, 31일 항서제약 FDA CRL 수령 예정

HLB의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 파트너사인 중국 항서제약이 오는 31일까지 FDA로부터 보완요구서한 (CRL)을 추가로 수령할 예정이다. HLB는 항서제약의 CRL에 구체적인 보완 요청 사유가 명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씨엔알리서치 (+11.52%)(55089K)

<u>씨엔알리서치, FDA이어 EMA 임상 3상 IND 승인...글로벌 경쟁력↑</u>

씨엔알리서치는 유럽의약품청(EMA)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임상 3상 IND 승인을 아미코젠 관계사인 로피바이오와 함께 수행했다고 29일 밝혔다.올해 초 미국식품의약국(FDA)에 IND 승인 이후 글로벌임상시험 수행에 대한 추가적인 소식을 전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유럽의 수개의 국가에서 동시에 진행될예정이다.

< 개별주 >

●피엔티 (+23.06%)(5432K)

(24.05.22)[Why] 전기차 캐즘 맞아?... 배터리 전극공정社 수주 '사상최대' 까닭은

피엔티의 올해 1분기 배터리 전극공정 수주잔고는 1조8927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업계 관계자는 "전극공정 장비는 다른 공정 대비 리드타임(주문~인도까지 소요 시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고객사 발주가 가장 먼저 나온다"며 "전극공정 장비업체들의 수주 동향이 장기적으로 캐즘이 지속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했다.전극공정 장비의 경우 주문을 받아 인도하기까지 통상 2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정도가 걸리는 다른 공정 장비의 두 배 수준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24.05.21)LFP 소재·배터리 국산화에 뛰어드는 장비사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장비기업인탑머티리얼과 피엔티 등이 LFP 배터리 국산화를 위해 공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피엔티의 소재 자회사인 피엔티머티리얼즈는 LFP 배터리 사업을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LFP 배터리 셀 양산을 위해 피엔티 본사가 있는 경상북도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LFP 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은 0.2GWh다.

●SK이터닉스 (+2.88%)(6290K) / 한선엔지니어링 (+5.85%)(1028K)

(24.05.27)전력 끊기면 큰 일 나는 데이터 센터, 수소가 해결책이라고? [biz-플러스]

(24.05.16)[특징주] SK이터닉스,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대안 'SOFC'...美 블룸에너지 연료전지 국내 공급권 보유 부각

SK이터닉스 회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블룸에너지사의 고효율 연료전지 국내 공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료전지 사업의 개발·PF·EPC·운영 등 전 밸류체인 통합 솔루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삼천리자전거 (+14.40%)(5316K)

[특징주] 삼천리자전거, 美中 관세 전쟁에 '전기차 넘은' 전기자전거 대란 현실화...수혜 기대감↑ 현지시간으로 28일 바이크 뉴스 온라인(Bike News Online)을 비롯한 현지 전문 매체들은 "오는 6월14일 부터 중국산 전기자전거, 청소년용 자전거 및 기타 특정 자전거 제품 수입업체는 추가로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고 일제히 보도했다.이어 "지난 24일 USTR은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부과하고 여러 차례 연장한 301조 관세 면제가 이날 만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성에스티 (+12.93%)(2069K)

[리포트 브리핑]신성에스티, '캐즘 감안시 선방, ESS에서 찾는 기회' Not Rated - 유화증권

유화증권에서 신성에스티에 대해 '캐즘 감안시 선방한 실적: 1Q24 매출액은 307억원, 영업이익은 31.5억원. 전년 360억원, 45억원(-14.7%, -30.0%) 대비 부진. 이는 1Q23이 반도체수급 대기물량과 고객사의 일시적인 요구가 많았던 시기였기 때문. 전분기인 매출 285억원, -16억원(+7.9%, 흑자전환) 대비 호실적인상황. ESS에서 찾는 기회: IT 사업 성장과 환경규제로 인한 ESS 시장 성장이 필연적. 동사는 상장시 수주1.5조원에서 현재 3.8조원으로 증가했는데 이중 약 2.3조원이 ESS 컨테이너. 중국에서 제조한 제품은 미국으로 납품하지 않기 때문에 IRA 로인한 리스크는 없음. 다만, 이중 미국대선의 변수를 염두해 두고 납품 지연요청을 한 고객사들이 있음.'라고 분석했다.

●일승 (+10.07%)(8835K)

韓 기업, UAE서 LNG 선박 최소 6척 15억 달러 규모 수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빈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우리나라가 아랍 국가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전통적 에너지·청정 에너지 분야에서는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와 우리 기업 간 'LNG 운반선 건조의향서'가 체결돼 우리 기업들이 최소 6척, 15억 달러 규모의 LNG 선박을 수주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 장 후 시간 외 주요 사항 >

●제이티 (+9.98%)(112K) / HB테크놀러지 (+3.79%)(519K)

[시간외Y] 제이티 '상한가'

반 홀 코닝 한국 총괄사장은 금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패키징 공정의 유리기판 분야 진출을 위해 글로벌 업체들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현재 코닝은 충남 아산에 연구개발(R&D)과 제조 시설을 모두 갖추고 국내에서 유리기판을 생산 중이다.제이티는 지난 2020년 코닝에 울트라신글래스(UTG) 레이저 커팅장비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장비는 레이저를 사용해 UTG 공정에 사용하는 글래스 원장을 자동으로 커팅하는 장비로, 유리기판 제조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와이랩 (+7.11%)(100K) / 엔비티 (+5.10%)(16K) / 디앤씨미디어 (+2.84%)(7K) / 미스터블루 (+2.67%)(131K)

네이버웹툰, 6월 나스닥행 이상무...주식 플랜 관리자 선임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의 미국 본사 웹툰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주식 플랜 수석 관리자를 채용 중이다. 6월 나스닥 상장을 준비 중인 웹툰엔터테인먼트는 현재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주관사로 상장예비심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상황에 따라 웹툰엔터테인먼트가 쿠팡처럼 나스닥에서 뉴욕증권거래소로 마켓을 변경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슈어소프트테크 (+6.51%)(1728K)

(24.05.27)[특징주]슈어소프트테크, 뉴스케일도 인정한 SMR 기술력...400조 시장 '선점'

한국형 원자로 계측제어시스템의 시험 검증을 15년 이상 수행해 왔다. 특히 IEEE 1012, KINAC/RS-015 표준을 준수하는 소프트웨어 검증 및 사이버보안 서비스에서 높은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다. 한국형 원자로 제어 시스템에 대한 검증에 참여하면서 독보적 위치를 구축했다. 소형모듈원전에 대한 검증을 시작했고 미국 뉴스케일이 만드는 소형모듈원전 검증 사업에 참여했다.

슈어소프트테크는 신성장동력으로 인공지능(AI)을 육성하고 있다. AI 시대로 진입하면서 AI 소프트웨어검증 생산성을 높이는 데 활용하는 '테스트 바이 AI'와 AI 자체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테스트 오브 AI' 두가지 방향으로 미래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 하반기 대기업과 의미 있는 계약 체결을 기대하고있다.

●이엔플러스 (+4.64%)(532K)

이엔플러스, 'AI 반도체' 적용 가능한 신규 이차전지 방열 소재 2종 개발

이엔플러스는 그라파이트(흑연) 기반의 신규 방열 소재 2종을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발로 이엔플러스는 한층 다양해진 방열 소재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게 됐다.회사는 반도체 시장에서도 관련 제품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NPU(신경망처리장치) 등 AI용 반도체 칩의 연산·처리 속도가 초고속화됨에 따라 발열량도 많아져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회사 관계 자는 "그래핀 등 탄소 기반 소재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신규 방열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며 "해당 제품은 전기차와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기존 2차전지 제품은 물론 반도체 분야까지확대·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흥구석유 (+4.60%)(266K) / 한국석유 (+2.58%)(42K)

<u>이스라엘 난민촌 또 포격 21명 사망...속 타는 미국 "레드라인 아냐"</u> "라파 텐트촌 공습 무기는 미국이 지원한 소형폭탄"...NYT, CNN

5월 30일(목)

미국) 1분기 GDP(잠)

미국) 1분기 PCE 물가지수(잠)

미국) 4월 미결주택판매

델 실적 발표

美국무장관, 몰도바 방문(~31일)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부부장, 미국 방문(~2일)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 시스템 오픈 행사 -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개통 및 6월 발행계획

보험회사 CEO 간담회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발표

카타르 경제실무단, 방한(~31일)

원전 로드맵 수립 2차 회의

제3회 청정수소교역 이니셔티브포럼 - 글로벌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의 장 열려

세계비파괴검사학술대회(~31일)

2024 농식품 기술투자 로드쇼

한국IT서비스학회, 2024 통합춘계학술대회

비트코인 서울 2024(~31일)

버추얼 걸그룹 핑크버스 음원 공개

2024 인디크래프트

22대 국회 개원

산은-태영, '개선계획' 약정 체결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유상증자 기준일

2024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국제건강산업박람회(헬스&뷰티위크)(~31일)

5월 31일(금)

미국) 4월 PCE 물가지수·개인소득·개인소비

EU) 5월 소비자물가지수(잠)

美국무장관, 몰도바 방문(~31일)

중국) 5월 NBS 제조업·비제조업 PMI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부부장, 미국 방문(~2일)

MSCI 리밸런싱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

BBQ, 치킨값 인상

카타르 경제실무단, 방한(~31일)

세계비파괴검사학술대회(~31일)

비트코인 서울 2024(~31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미국임상종약학회(ASCO)(~4일)

HLB 리보세라닙, 항서제약 FDA CRL 수령 예정

윈팩 추가상장(유상증자)

<u>2024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국제건강산업박람회(헬스&뷰티위크)(~31일)</u>

6월 1일(토)

<u>롯데웰푸드, 초콜릿류 등 17종 가격 인상</u> <u>동원F&B, 양반김 가격 인상</u> <u>롯데칠성 가격 인상</u> 5월 수출입동향 <u>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부부장, 미국 방문(~2일)</u> <u>OPEC+ 회의</u> 보잉 우주선 '스타라이너' 첫 유인 시험비행</u> 미국임상종약학회(ASCO)(~4일)

_

6월 2일(일)

<u>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부부장, 미국 방문(~2일)</u> 멕시코 선거(대선 및 총선) <u>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u> <u>미국임상종약학회(ASCO)(~4일)</u>

_

6월 3일(월)

미국) 5월 ISM 제조업 PMI 중국) 5월 차이신 제조업 PMI <u>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5일)</u> <u>YG엔터테인먼트, AKMU(악동뮤지션) 세 번째 미니 앨범 'LOVE EPISODE' 발표</u> <u>미국임상종약학회(ASCO)(~4일)</u> BIO USA 2024(~6일) 그리드위즈 공모청약(~4일)

<테마•개별 일정 Check>

△ 기존 일정

▲ 추가'수정된 일정

△11차 전기본 계획 발표 예정 / 24.05 中

11차 전기본 이달 발표...신규원전·SMR·집단에너지 반영되나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르면 다음주 신규 원전 건설 방향 등을 담은 '11차 전기본' 초안을 공개한다.

△델 실적발표 / 24.05.30

[뉴욕증시 주간 전망] PCE 물가지수, 델 실적 발표...월요일 휴장

델이 30일 공개하는 1분기 실적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파급력을 갖고 있다.델은 대표적인 PC 업체이지만 슈퍼마이크로컴퓨터(SMCI)가 장악한 인공지능(AI) 서버·데이터센터 시장에 최근 새로 진입했다.델의 실적 발표는 AI 수요와 관련해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테마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HLB, 항서제약 FDA CRL 수령 예정 / 24.05.31

HLB 리보세라닙, 31일 항서제약 FDA CRL 수령 예정

△미국임상종양학회 ASCO / 24.05.31~06.04

'바이오 빅이벤트' ASCO 참가하는 토종 바이오 기대감 높인다

△저출생 종합 마스터 플랜 / 24.06.03~10

[단독] 대통령 직속 저고위, 6월 초 '저출생 종합대책' 내놓는다

정부의 '저출생 종합 마스터 플랜'이 이르면 내달 초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텔 AI 서밋 / 24.06.05

팻 겔싱어 인텔 CEO, 6월 초 방한 무산

△애플 세계개발자대회WWDC / 24.06 10

애플, 올해 WWDC에서 어떤 내용 공개할까

<u>애플, 6월 10일 AI 전략 밝힌다...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개최</u>

"삼성전자 기다려라"...AI 새옷 입는 애플, '온디바이스 AI' 경쟁 점화

애플은 오는 6월 연례개발자회의(WWDC24)에서 온디바이스 AI 중심의 iOS 18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원전기업단 방한 / 24.06.11

'韓 원전 건설 기술력 직접 확인'...英 원전 기업단, 내달 11일 방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 / 24.06.12

내달 삼성 파운드리 포럼 관심... TSMC 잡을 비장의 무기는

삼성전자는 오는 6월12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새너제이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SFF) 2024'를 개최한다. SFF는 파운드리 주요 고객사와 파트너사를 초청해 삼성전자의 최신 기술 및 사업 전략, 미래비전을 소개하는 자리다.

△삼성 어드밴스드 파운드리 에코시스템(SAFE) 2024 / 24.06.13

삼성전자, "고객사 한 자리에"...실리콘밸리 포럼 개최

△금융위원회 인터넷뱅크 3사 중간평가 / 24.06.13

금융당국, 6월 카·케·토 중간평가..."4번째 인뱅 인가 의미 있는지 검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 24.06.14

<u>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 '임박'...해줌, "VPP 사업 속도낸다"</u>

분산법은 2024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발전소(VPP), 전력계통영향평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설치의무제도, 배전망 관리 강화, 지역별 요금제 등이 있다.

△유럽 인터배터리 24.06.19~21

'2차전지 돌아온다' LG엔솔부터 에코프로까지...유럽 인터배터리 총출동

△퀀텀코리아 2024 / 24.06.25~28

노벨상 석학이 양자기술 미래 알린 '퀀텀코리아' 올해도 연다

△FDA,이메텔스타트 승인 유무 결론일 / 24.06.16

에스티팜 주가 장중 25%대 급등, 혈액암치료제 상업용 물량 생산 기대감

<u>골수이형성증 동반 빈혈 치료제 FDA 허가권고</u>

제론 코퍼레이션 측은 처방약 유저피법(PDUFA)에 따라 FDA가 오는 6월 16일까지 이메텔스타트의 승인 유무에 대한 결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네이버웹툰 IPO 예정 / 24.06 中

'美 상장 시동' 네이버웹툰 몸값 5조 넘어설까

△정부, 방산 수출 확대 대책 발표 예정 / ~24.06 中

산업부 "상반기 K-방산 수출 확대 대책 발표"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첨단민군협력지원과를 중심으로 방산업계와 소통을 정례화해 업계의 애로를 꼼꼼히 챙기고 상반기 중 방산 수출 및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로봇첨단로봇 기술개발 로드맵 발표 예정 / ~24.06 中

최상목 "로봇 핵심부품 80% 국산화할 것...상반기 로드맵 발표"

△체코, 신규 원전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예정 / 24.06~07 中

체코원전 발주사 내달 15일 평가보고서 제출...체코 정부 최소 한달 '숙려'

'30조 잭팟' 체코 원전 수주 위한 도전 시작됐다...이르면 6월 판가름

원전 업계에서는 이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이번 체코 신규 원전 수주사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美하원, 생물보안법 관련 / 24.07.04

Momentum builds for House bill cracking down on Chinese biotechs

바이오시큐어법(BISECURE Act)을 추적하고 있는 5명의 로비스트에 따르면 다음 달 하원 위원회는 미국생명공학 기업이 주요 약품 성분을 만드는 중국 기업과 사업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목표는 하원이 7월 4일 휴회 전에 법안을 통과시켜 연말 필수 입법 패키지에 포함되도록하는 것입니다.

< 차트상 관심주 >

[상승봉] 500 & 150억 봉

-(0일차) 제이투케이바이오 워트 피엔티 뷰티스킨 삼성공조 유니셈 신성에스티 씨엔알리서치 한국화장품제조 샤페론 신세계건설 한성크린텍 삼천리자전거 토니모리 일승 모비데이즈

-(1일차) 3S 칩스앤미디어

-(2일차) 한전산업 중앙첨단소재

[5~8일선] 동아화성 대성창투 두산퓨얼셀 대명에너지 비아이매트릭스 LS머트리얼즈 유니 테스트 풀무원

[15일선] 이오플로우 대한전선 금양그린파워 디알텍 삼화페인트 윙입푸드

[33~45선] 경창산업

[120선]

[바닥] 차백신연구소 기산텔레콤 한싹 티비씨 핑거 시너지이노베이션 벽산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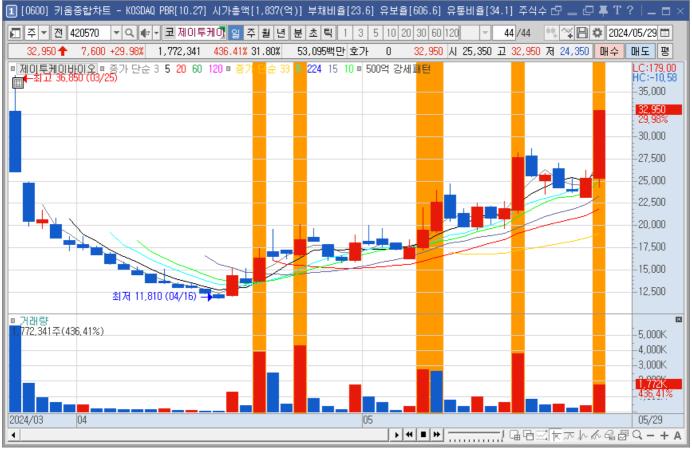
[단기과열 예고] 이삭엔지니어링 제이스코홀딩스

[단기과열] LS마린솔루션 범한퓨얼셀 한선엔지니어링

[투자경고] 실리콘투 피에스케이홀딩스 중앙첨단소재 이오플로우 에스바이오메딕스 한선엔 지니어링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 삼영에스앤씨

[투자위험]

< 0일차 차트 >







▶ ■ ▶

品品図下さたか品図Q-+A





















< 1일차 차트 >





< 2일차 차트 >



-10,000K < 8일선 쯤 차트 >

-3,000 -2,000

-20.000K -15,000K

■ 거래량 7,206,804주(8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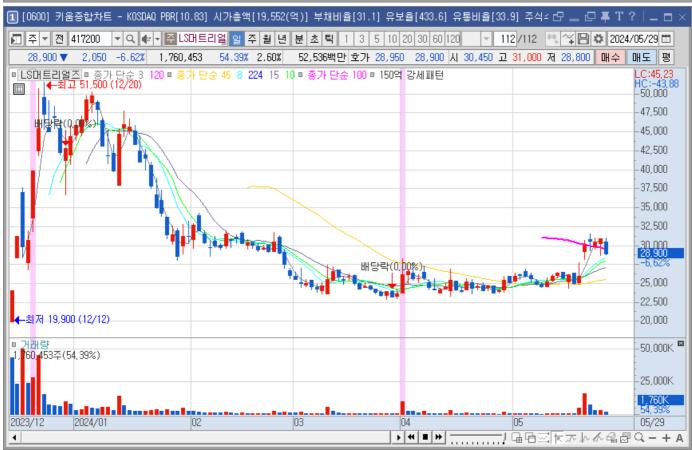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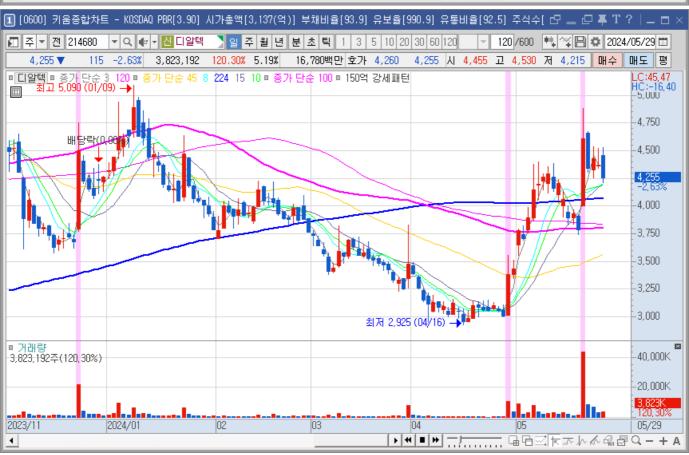




< 15선 쯤 차트 >









< 33 ~ 45선 차트 >



<120선 차트 >

•••••

< 경제 일반 >

주요일정

5월 30일 <u>개인투자용 국채 업무 시스템 오픈 행사 -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개통 및 6월 발행계</u> 획

5월 30일 보험회사 CEO 간담회

5월 31일 MSCI 리밸런싱

5월 31일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

5월 31일 BBQ, 치킨값 인상

6월 1일 롯데웰푸드, 초콜릿류 등 17종 가격 인상

6월 1일 롯데칠성 가격 인상

6월 1일 동원F&B, 양반김 가격 인상

6월 1일 5월 수출입동향

6월 5일 1분기 GDP

휴장일

6월 6일 한국 증시 휴장

6월 10일 중국, 홍콩 증시 휴장

외국인 매도 폭탄에 코스피 2,670대 급락...코스닥도 동반 하락(종합)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443억원, 2천649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1조2천727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이날 코스피200 선물도 1천5천424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56포인트(1.48%) 내린 838.45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24억원, 1천681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2천530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2조7천826억원, 10조5천844억원으로 집계됐다.

원/달러 환율, 美 금리인하 지연 전망에 상승 마감...1,365.0원

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3년물 연 3.425%

펄펄 나는 나스닥... 설설 기는 코스피... 왜?

국내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코스피 3000선 기대가 무르익고 있으나 무색하게도 6월이 다 돼 가도록 2800선을 넘지 못한 채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수혜가 미국, 대만과 같은 특정 국가에 집중되고 있는 데다 윤석열정부가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했던 기업 밸류업(가치제공) 지원방안에 대해 시장이 '기대 이하'로 평가하고 있는 점도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는 주요한 원인으로 거론된다.나스닥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국 증시는 활황세다. 연초 대비 28일 기준 유럽 유로스톡스50지수는 11.47%,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16.72%, 대만 자취안지수는 22.43% 상승했다. 코스피는 이 기간 1.99%의 상승률을 기록, 사실상 횡보 상태다. 코스피는 29일 들어서도 전일 대비 45.55포인트(1.67%) 하락하며 2700선이다시 속절없이 무너졌다.

nomad:

환율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 빠진거죠... 원인이랄게 있나요. 이게 K죠.. ㅠㅠ

악화된 금리 전망에 외국인 1조 매물폭탄...'AI 경쟁력에 하반기 주가 달렸다'

미국 증시가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 기대를 업고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국내 주가지수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한국이 금리·환율 등 대외 변수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진 데다 AI 등 미래 먹거리 시장을 완전히 주도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하반기에도 코스피가 전고점에 근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증시 환경 속에서 AI 관련주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가 얼마나 경쟁력을 보이는지가 앞으로 주가 흐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마켓톺] 외국인 손털자 맥빠진 코스피...10개월만 최대 순매도

이날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1조366억원)과 코스피200선물시장(1조5천424억원)에서 각각 1조원 넘게 순매도하며 주가를 끌어내렸다.코스피 현물의 경우 지난해 7월 25일(1조3천630억원) 이후 10개월여 만에 최대 규모의 순매도액을 기록했다.

외국인이 이날 가장 많이 순매도 한 종목은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였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4 천217억원어치인 557만4천200주가량을 순매도했다.이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SDI(923억원), LG 화학(853억원), 현대차(321억원), 네이버(301억원), 현대로템(279억원), 셀트리온(254억원), LIG넥스원 (220억원), PSCO홀딩스(200억원) 등을 순매도했다.반면 한미반도체(470억원), SKC(117억원), SK하이닉스 (97억원), 아모레퍼시픽(91억원), HD현대(84억원), 기아(83억원), KB금융(58억원) 등은 매수 우위를 보였다.

nomad:

늘 K주식은 외국인을 봐야 한다

'삼성 파업' 한마디에...外人 4253억 매도 폭탄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09% 내린 7만5200원에 장을 마쳤다.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창구에서 매물이 쏟아졌다. 이날 외국인의 순매도 금액은 4253억원에 달한다. 유가증권시장 전체 순매도 금액 (1조344억원)의 41% 규모다.이날 삼성전자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창사 이후 처음으로 파업을 선언했다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내렸다. 외국계 IB의 투자 리포트도 삼성전자 주가하락을 부추겼다. 모건스탠리는 이날 SK하이닉스의 주가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고 평가하면서 '아시아 AI 수혜주 추천 목록'에서 삼성전자는 제외했다. SK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가 아직 AI 칩을 제조하는데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양산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nomad:

파업에 외국인이 나간 건 정말 아니죠..;;;;;; 나갈 시즌에 나간 걸, 이걸 파업으로 돌려서야 ㅠㅠ

배터리 수요 둔화 장기화... 2차전지주 줄줄이 신저가

하이투자증권 정원석 연구원은 "북미, 유럽 전기차 수요 부진, 양극재 판가 하락, 유럽과 신흥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 내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 하락 등으로 조정된 중장기 실적 전망치를 고려하면 2027년 예상 실적 기준 주가수익비율(PER) 26.1배의 밸류에이션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증권가에서는 2차전지 업황의 반등 시점을 이르면 하반기, 늦으면 내년 상반기로 내다보고 있다. KB증권 이창민 연구원은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은 전방 수요 부진에 따른 가동률 저하 및 리튬 가격 하락으로 인한평균판매단가(ASP) 급감이지만 하반기부터는 점진적 상승 흐름이 예상된다"며 "금리인하와 글로벌 경기회복, 낮은 재고 수준에 따라 보복 수요가 전망돼 실적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원석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에는 리튬 가격 안정화로 수익성이 점차 개선되겠지만 본격적 물량 회복은 내년에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nomad:

바닥권 그 어딘가다.. 모두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바닥이다.. 늘 주식시장은 6개월~1년 선행한다. 지금 수요를 볼 게 아니라, 1년 후 시장은 어떨까? 이걸 예상해야 한다.

'새벽 2시까지 거래' 외환시장 막바지 점검 "이상무"

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겠다고 예고한 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개월간 시범운영 결과는 일단 합격점이었는데, 외환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외환 시장이 열리네요. 지금 외환 이탈 막으려면 무조건 선진국 외화 지수에 포함돼야 합니다. 한국 위기인데.. 사실 일본이 10배는 더 위기라.. 일본 보고 있으면 됨.

급전도 못 갚았다... 카드대출 연체율 10년 만에 최대 ★

2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지난 2월 말 기준 3.4%를 기록했다. 2014년 11월(3.4%) 이후 9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nomad:

과거 경험이ㅠㅠㅠ

주요 주가 지수

종목명 ‡	종가	고가	저가	변동	변동 % ‡	시간 ‡
☞ 코스피지수	2,677.20	2,721.63	2,677.07	-45.65	-1.68%	29/05 🕒
※ 코스피 50	2,519.86	2,566.24	2,519.86	-44.21	-1.72%	29/05 🕒
※ 코스닥	838.46	849.93	838.08	-12.55	-1.47%	29/05 🕒
■ 다우존스	38,441.54	38,716.28	38,413.67	-411.32	-1.06%	05:20:01 🕒
■ S&P 500	5,266.95	5,282.27	5,262.70	-39.09	-0.74%	05:20:00 🕒
■ 나스닥종합지수	16,920.58	16,989.60	16,873.97	-99.30	-0.58%	05:00:59 🕒
■ 러셀 2000	2,031.75	2,040.95	2,028.95	-35.10	-1.70%	29/05 🕒
■ CBOE VIX	14.28	14.32	12.92	+1.36	+10.53%	05:15:01 🕒
I·I 캐나다 S&P/TSX	21,897.98	22,170.16	21,896.66	-367.07	-1.65%	05:38:34 🕒
☑ 브라질 보베스파	122,707	123,780	122,458	-1,072	-0.87%	05:20:00 🕒
■ S&P/BMV IPC	55,212.64	55,458.43	54,352.15	+27.69	+0.05%	05:24:00
■ DAX	18,474.88	18,677.70	18,438.01	-202.99	-1.09%	00:39:00
器 영국 FTSE	8,183.07	8,255.39	8,180.03	-71.11	-0.86%	00:50:00
■ 프랑스 CAC	7,935.03	8,040.03	7,926.42	-122.77	-1.52%	00:35:45
■ 유로 스톡스 50	4,964.25	5,027.65	4,955.35	-66.10	-1.31%	00:35:00
■ 네덜란드 AEX	905.83	912.82	903.14	-6.40	-0.70%	00:35:45
■ 스페인 IBEX	11,145.10	11,260.90	11,135.00	-130.90	-1.16%	00:35:00 🕒
■ 이탈리아 FTSE MIB	34,150.54	34,637.09	34,073.06	-509.01	-1.47%	00:35:00

실시간 선물 가격

종목명 🕏	월물 ‡	종가	고가	저가	변동	변동 % \$	시간 ≎
□ 금	2024년 6월	2,336.85	2,363.60	2,335.20	-19.65	-0.83%	05:44:21 🕒
□ 금/달러		2,337.11	2,362.59	2,334.72	-24.17	-1.02%	05:43:43 🕒
□ 은	2024년 7월	32.127	32.495	31.788	-0.010	-0.03%	05:43:40 🕒
■ 구리	2024년 7월	4.7778	4.8930	4.7527	-0.0772	-1.59%	05:44:08 🕒
틀 백금	2024년 7월	1,046.20	1,071.85	1,043.35	-20.60	-1.93%	05:43:44 🕒
틀 팔라듐	2024년 9월	966.78	999.50	960.75	-21.12	-2.14%	05:43:42 🕒
■ WTI유	2024년 7월	79.37	80.62	79.00	-0.46	-0.58%	05:44:13 🕒
器 브렌트유	2024년 8월	83.48	84.72	83.14	-0.46	-0.55%	05:44:04 🕒
■ 천연가스	2024년 7월	2.660	2.846	2.655	-0.165	-5.84%	05:44:06 ©
틀 난방유	2024년 7월	2.4534	2.5120	2.4488	-0.0299	-1.20%	05:45:01 [©]
■ 가솔린 RBOB	2024년 7월	2.4602	2.5252	2.4525	-0.0416	-1.66%	05:45:00 🕒
器 런던 가스 오일	2024년 6월	749.25	767.25	747.88	-13.25	-1.74%	05:44:57 ©
器 알루미늄		2,796.00	2,800.50	2,727.00	+66.50	+2.44%	02:55:12
## 아연		3,114.00	3,154.00	3,101.00	+14.00	+0.45%	02:58:52
# 니켈		20,519.00	20,764.50	20,354.50	+52.00	+0.25%	02:58:56 🕒
ᢚ 구리		10,480.00	10,615.00	10,398.50	-21.50	-0.20%	02:58:08
틀 미국 소맥	2024년 7월	693.25	706.25	688.50	-7.00	-1.00%	03:19:59 🕒
틀 현미	2024년 7월	17.823	18.043	17.808	-0.267	-1.48%	03:20:08 🕒
■ 미국 옥수수	2024년 7월	455.80	463.00	454.38	-5.20	-1.13%	03:20:05
■ 미국 대두	2024년 7월	1,213.00	1,231.25	1,212.50	-16.50	-1.34%	03:19:59 🕒

조가

고가

저가

시가 ^

< 경제/인구 구조 변화 >

'저출생 돌파' 새 국회 첫해에 승부

조모며 🛦

정치권 안팎에선 22대 국회의 성공 여부는 본격적인 선거 정국으로 접어들기 전에 결정될 것으로 본다. 21대 국회에서 미완의 숙제로 남은 연금개혁, 최대 현안인 저출생 위기 극복, 저성장 탈출을 도울 세금 제도 개편처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핵심 과제를 논의할 '골든타임'은 최대 1년여에 그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특히 저출생 문제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 29일 통계청은 3월 출생아 수가 1만9669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7.3% 줄어들어 3월 기준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대선주의 핵심입니다. 다 눈으로 봐두시고..

지금 거의 10번도 넘게 기회를 줘 왔습니다. 그거 하나도 못잡아도 됩니다.

늘 시선을 '오늘'이 아니라 '장기적 미래'에 둬야 합니다.

잘 새겨두고, 장기적 미래에 어떻게 활용할건지 알아두면 됩니다.

매일 오늘만 수익내려고 하니까 말리는 겁니다.

• 관련주:

- [특징주] 꿈비, 중국 출산률 급감에 '위기'... 장려책 시행에 강세
- 。 [특징주]제로투세븐, 中 현금성 출산장려책 잇따라 발표 소식에 강세↑
- ∘ [특징주] 아가방컴퍼니, 정부 저출산 정책 수혜 기대에 상한가
- ∘ 메디앙스, 7년 연속 중국 '광군제'서 유아생활용품 부문 1위
- [특징주]케이엠제약, 뽀로로 칫솔 등 中 진출 소식에 `上`
- ∘ [특징주] 유엔젤, 국내 유아 스마<u>트러닝 1위... 서울시 15조 초대형 양육지원 소식에 상승세</u>
- <u>오로라월드, 중국 청도출판과 MOU 맺고 '유후와 친구들' 현지 시장 진출</u>
- 프리미엄 키즈 셀렉샵 ㈜토박스코리아, 'DINOSOLES' 상표권 인수
- [특징주]깨끗한나라, 中 205조 유아물티슈 시장…중국정책 수혜 기대↑
- [특징주]로보로보, 중국 코딩 5000만명 수요...로봇 코딩 '블루오션' 강세
- [특징주] 삼성출판사, '아기상어' 1조원 가치... 더핑크퐁컴퍼니 IPO 본격화에 강세
- · [특징주]삼천리자전거, 오세훈 15조 저출산 투자..국내최초 카본 유모차 공급
- [클릭 e종목]"비스토스, 독보적 저평가 AI의료...구글 프로젝트와 유사"
- ∘ <u>중국시장 뚫는 K콘텐츠 '핑크퐁'...누</u>적 조회수 75억건 기록
- 캐리소프트, '캐리와 슈퍼콜라' 중국 개봉 확정...알리바바 계열사 공동 배급사 참여
- ∘ [클릭 e종목]"SAMG엔터, 중국 리오프닝 최대 수혜"
- · [특징주] 비상교육, 내년 역대 최대 외국인력에 차량 정비사까지 추가 검토에 상승세

출생률 바닥 뚫고 지하로...1분기 첫 0.7명대 또 역대최저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0.06명 감소한 수치다. 1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이 0.8명을 밑돈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2060년 청소년 인구 '반토막' 난다...다문화 학생은 '증가일로'(종합)

인구 감소 현상과 맞물려 전체 청소년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2060년에는 지금의 '반토막'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시, 신혼부부 '반값 전세' 확대...저출생 막는다

최근 통계청이 2052년 서울 인구가 현재보다 150만명 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저출생의 영향인데,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는 저출생 원인을 불안정한 주거 환경으로 보고, 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ππ... 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한국을 만들어서 후세들에게 미안할 뿐..

< 부동산 >

•••

< 국제 - 미중패권전쟁 >

美 국방수권법 공개...드론 군단 창설하고 유사시 中 원유 차단

총 8837억달러(약 1200조원) 규모의 국방 예산안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중국을 겨냥해 드론·AI 부문 전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법안은 중국군의 양적 우위를 상쇄하기 위해 수천 개의 저비용 무인 자율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레플리케이터(Replicator)' 구상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법안은 아울러 법안 시행 180일 이내에 중국과의 무력 충돌 시 해양을 차단해 원유 수송을 막는 계획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해양 차단이 가능한 경로로는 중국과 주변 국가들의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동중국해·대만해협 등이 명시됐다.

<u>대만 총통, 美상원 대표단에 中겨냥 "권위주의 팽창 맞서 협력"</u>

라이칭더 대만 신임 총통이 29일 대만을 방문한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에 "권위주의 팽창(확장)에 맞서 손을 맞잡고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中, '대만 포위훈련' 재개 가능성 언급..."주권수호행동 안 멈춰"(종합)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주펑롄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훈련 명칭인 '연합 리젠(利劍·날카로운 칼)-2024A 연습'이 향후 B나 C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만 독립' 도발이 그치지 않으면 해방군(중국군)의 국가 주권·영토 완전성 수호 행동은 잠시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만 전쟁 시나리오 중 하나.

중국·캄보디아 군사밀착 강화...첫 실탄사격 해군 합동훈련 실시

중국과 군사적 밀착을 강화하는 캄보디아가 자국 앞바다에서 중국과 첫 실탄 사격 해군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29일(현지시간) 교도통신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전날 양국 해군은 캄보디아 서남해안에서 양국 연례 합동훈련인 '금룡(골든 드래건) 2024'의 일환으로 훈련을 벌였다.

中 "작년 美인권 더 악화...소수의 특권" 美인권침해보고서 발간

보고서는 "소수 지배층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득권을 쥔 상황에서 대다수 일반인은 기본권과 자유가 방치된 채 갈수록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nomad:

맞는데, 이걸 중국이 할 말은 아니지..

美 안보 블랙리스트 中 기업들, 이름 바꿔서 규제 회피 시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시간) 일부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안보 문제로 인한 규제를 피하기위해 자회사를 세워 브랜드를 교체하거나, 미국 파트너 회사들을 앞세워서 활동한다고 보도했다. 작년 12월 미국 미시건의 빅3 자동차 회사 주변에 아메리칸 라이다라는 기업이 등장했는데, 그 배후에는 미국이 국가 안보상 우려라고 지목한 중국의 자율주행차용 라이다 센서 기술 스타트업 허사이 그룹이 있다.

< 국제 - 미국 >

주요일정

5월 30일 1분기 GDP(잠)

5월 30일 1분기 PCE 물가지수(잠)

5월 30일 4월 미결주택판매

5월 30일 델 실적 발표

5월 31일 4월 PCE 물가지수·개인소득·개인소비

6월 3일 5월 ISM 제조업 PMI

6월 4일 4월 JOLTs

6월 5일 캐나다) BOC 통화정책회의

6월 5일 ISM 서비스업 PMI

6월 6일 엔비디아 액면분할 기준일

6월 7일 5월 고용보고서

6월 12일 FOMC 회의 발표(현지시간)

6월 12일 5월 소비자물가지수

Stock market today: Live updates (cnbc.com)

다우지수는 300포인트 하락, S&P 500 지수는 엔비디아 외에는 거의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실시간 업데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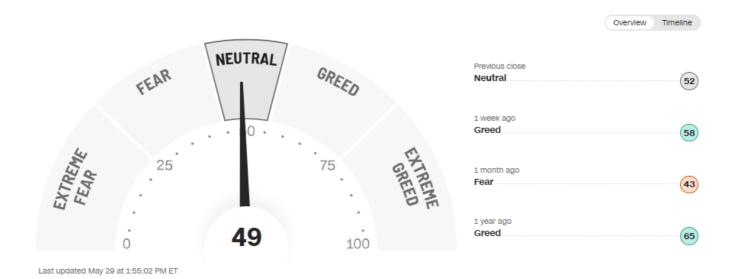
인공 지능의 대명사 엔비디아의 거래가 급락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트레이더들의 마지막 희망 중 하나가 위협받으면서 수요일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387포인트(1%)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6%, 나스닥 종합 지수는 0.4% 하락했습니다.

Fear and Greed Index - Investor Sentiment | CNN

Fear & Greed Index

What emotion is driving the market now? Learn more about the index



U.S. Treasurys: investors weigh state of economy (cnbc.com)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거의 한 달 만에 처음으로 4.6%를 돌파했습니다.

수요일 미국 국채 수익률은 투자자들이 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5년물 경매의 부진을 소화하면서 하루 더상승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8bp 이상 상승한 4.624%로 5월 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989%로 약 3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Dollar rebounds as yields rise, consumer confidence improves (cnbc.com)

수익률 상승에 따른 달러화 반등, 소비자 신뢰도 개선

화요일 미국 국채 벤치마크 수익률이 일부 약세 경매 이후 4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달러는 상승세를 보이며 이전 손실을 만회했습니다.

달러 지수는 104.33까지 하락한 후 104.60으로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유로화도 1.0860달러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스털링은 0.04% 약세인 1.276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달러는 일본 엔화 대비 0.17% 상승한 157.13엔을 기록했습니다.

<u>Unemployment Rates Up From Last Year in 78% of US Metro Areas - BNN Bloomberg</u>

미국 대도시 지역의 78%에서 실업률이 작년보다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대도시 지역의 4분의 3 이상에서 실업률이 1년 전에 비해 높아졌습니다.

수요일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월에 389개 대도시 지역 중 305개 지역에서 실업률이 상승했습니다. 56곳에서는 실업률이 하락했고 28곳에서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Weekly mortgage demand drops to three-month low, as rates climb again (cnbc.com).

주간 모기지 수요가 3개월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금리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잔액이 76만6550달러 이하인 30년 고정금리 모기지의 평균 약정금리는 7.01%에서 7.05%로 올랐다

재융자 수요는 일주일 동안 14% 급감했지만 여전히 1년 전 같은 주에 비해 12% 높았습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신청은 일주일 동안 1% 감소했으며 1년 전 같은 주보다 10% 감소했다.

주가·집값도 고공행진...美인플레 억제 어려워졌다

주택과 주식 가격이 오르면 자산 효과로 인해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커지게 된다. 실제로 3월 미국 소비지출은 한 달 전에 비해 0.8% 증가하며 2023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부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는 인플레이션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노스웨스턴뮤추얼의 최고투자책임자(CIO)인 브렌트 슈테는 "자산 효과는 소비 증가와 인플레이션 상승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며 "주가 상승은 물가를 잡는 마지막여정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1분기 횡보했다. 아폴로글로벌의 수석이코노미스트인 토르스텐 슬록은 "최근 주가 상승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은 효과가 희석되거나 역전돼버렸다"고 말했다.

nomad:

지금은 각종 지표가 혼란스러운데요. 가운데 층의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게 크다.

늘 말씀드리지만, 비싼게 잘 팔리는 건 좋은 징조가 아니다.

싼게 많이 팔려야 한다. 그래야 경기가 돈다.

연준의 베이지북, 미국 경제와 물가의 완만한 성장을 지적하다

미국 경제는 4월 초 이후 대부분의 지역에서 "약간 또는 완만한" 속도로 확장되었으며 소비자들은 물가 상승에 반발했다고 연방 준비 은행은 지역 비즈니스 연락처를 대상으로 한 베이지 북 설문 조사에서 밝 혔습니다.

수요일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소매 지출은 보합에서 소폭 증가했으며, 이는 소비자들의 재량 지출 감소와 가격 민감도가 높아진 것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불확실성 증가와 하방 위험이 커졌다는 보고로 인해 전반적인 전망은 다소 비관적으로 변했습니다."

US firms grow more pessimistic on economic outlook, Fed survey shows | Reuters

미국 기업들은 경제 전망에 대해 더 비관적으로 성장, 연준 설문 조사에 따르면

미국 경제 활동은 4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계속 확장되었지만 기업들은 미래에 대해 더 비관적이었고 인플레이션은 완만한 속도로 증가했다고 수요일 미국 연방 준비 은행 설문 조사에 따르면 중앙 은행가 들이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할 기간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최근 경제 건전성에 대한 온도 점검에 따르면 고용 시장은 점차 정상화 수준으로 회복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agnificent Seven: Hedge Funds Exposure to Big Tech Hits Record as Nvidia Soars - Bloomberg 엔비디아의 급등으로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대한 헤지 펀드의 노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골드만삭스 그룹의 프라임 브로커리지에 따르면 지난주 엔비디아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 발표 이후 미국 기술 대기업에 대한 헤지 펀드의 노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닷컴, 메타 플랫폼, 알파벳,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기업은 현재 미국 단일 주식에 대한 헤지펀드 총 순 익스포저의 약 2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국제 - 유럽 >

주요일정

5월 30일 美국무장관, 몰도바 방문(~31일)

5월 31일 EU) 5월 소비자물가지수(잠)

6월 6일 유럽의회선거(~9일)

6월 6일 EU) ECB 통화정책회의

6월 7일 EU) 1분기 GDP

Europe markets open to close: Rate cuts, inflation, stocks

유럽 증시 하락 마감, 로열 메일 소유주 IDS, 매각 계약으로 4% 상승 수요일 유럽 증시는 4월 중순 이후 최악의 장세를 기록하며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모든 업종과 주요 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벤치마크인 Stoxx 600 지수는 잠정적으로 1% 이상 하락 마감했습니다. 광업주가 2.12% 하락하며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ECB's Knot says policy to ease 'gradually' as markets eye rate June cut (cnbc.com)

유럽중앙은행(ECB)의 매듭, 시장이 6월 금리 인하에 대비함에 따라 통화정책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책금리는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덜 제약적인 수준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유럽중앙은행(ECB) 이사회 위원인 클라스 노트(Klaas Knot)는 화요일 말했다.

시장은 올해 들어 6월부터 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완전히 반영하고 있으며, 로이터가 조사한 이코노미스 트들은 세 차례의 금리 인하를 계속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트 총재는 ECB가 6월부터 기대 인플레이션, 시장 가격, 경제에 대한 새로운 직원 전망치를 고려하여 데이터 의존적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분기 독일 실질임금 전년비 3.8%↑..."사상 최대폭 상승"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의 2024년 1~3월 1분기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3.8% 상승했다고 마켓워치와 dpa 통신, RTT 뉴스가 29일 보도했다.

매체는 독일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관련 데이터를 인용해 4분기 연속 올랐으며 2008년 통계 시작 이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독일 5월 물가 2.4% ↑...5개월 만에 반등

독일의 5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 대비 2.4% 오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독일 통계청이 29일(현지시간) 밝혔다.

독일 물가상승률은 올해 3·4월 모두 2.2%로 약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이달 들어 반등했다. 독일 물가가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반등했지만 유럽중앙은행(ECB)이 내달 6일 통화정책이 사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데 별다른 변수가 되지는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독일 6월 GfK 소비자신뢰지수 -20.9...전월 대비 개선세 지속(상보)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소비심리가 6월에도 개선세를 이어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29일 다우존스에 따르면 시장조사기관 GfK는 선행지수인 6월 소비자신뢰지수가 마이너스(-) 20.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22.4와 이달 수정치인 -24.0을 모두 웃돈 수준이다.

<u>푸틴 "서방, 우크라에 러 타격 허용 시 심각한 결과"</u>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서방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야 한다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장거리 정밀 무기는 우주 정찰 능력 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이 경우 서방이 직접 개입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페스코프 대변인은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러시아 본토 공격에 동의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비우호적 행동이 아니라 적대적 행동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u>러 "철수한 서방기업 자산, 국유화 고려 안 해"</u>

29일(현지시간) 주요 현지 매체에 따르면 드미트리 비리쳅스키 러시아 외무부 경제협력국장은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국유화가 아니라 임시 관리로 이 조치들은 소유권을 바꾸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덴마크 맥주기업 칼스버그 그룹이 소유한 발티카, 독일 가스판매업체 유니퍼의 러시아 자회사 유니 프로, 유니퍼의 모기업인 핀란드 포르툼의 일부 지분 등이 러시아 국유재산관리청(로시무셰스트보)의 임 시 관리를 받고 있다.

<u>스웨덴, "우크라이나에 1조6748억원 지원" 밝혀</u>

스웨덴 룰레오 인근 룰레오-칼락스공항에서 지난 3월4일 JAS 39 그리펜 C/D기가 이륙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29일 지원 패키지로 우크라이나에 130억 크로나(약 1조6748억원)의 군사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제 - 중국 >

주요일정

5월 30일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부부장, 미국 방문(~2일)

5월 31일 5월 NBS 제조업·비제조업 PMI

6월 3일 5월 차이신 제조업 PMI

6월 11일 비구이위안 청산 심리 청문회

6월 12일 5월 소비자·생산자물가지수

상하이증시 0.05% 상승 마감...선전 0.30%↑

[중국증시-마감] IMF 성장률 전망치 상향에 강세

IMF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5%로, 내년 성장률을 4.5%로 각각 전망했다. 지난달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4.6%와 4.1%로 각각 예측했는데, 이를 0.4%포인트씩 높인 것이다.

1분기 성장세가 강했던데다 최근 중국 당국이 각종 경기부양책을 꺼냈다는 점이 전망치 상향 조정의 근거가 됐다. IMF 전망에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증시가 하루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다만 이날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하락세를 보인 점은 중국 증시에 부담이 됐다.

[대만증시-마감] 美 연준 매파적 발언·고점 부담에 하락

29일 대만증시는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인사의 매파적 발언과 고점 부담 등으로 인해 하락했다.

대만 가권지수는 전장 대비 195.91포인트(0.90%) 내린 21,662.50에 장을 마쳤다.

IMF "中 성장률 전망 5%로 상향...1분기 호조"

IMF는 '중국 경제 연례 협의' 대표단 방중을 거쳐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가 올해 5%, 내년에 4.5%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전망치는 각각 4.6%, 4.1%였다. 올해 5% 성장은 중국 정부가 양회에서 설정한 목표치에 부합한다.IMF는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데이터가 호조를 보였고 최근 정책 조치가 있었다"고 전망치를 상향한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 재정당국은 이달부터 1조위안(약 188조원) 규모의 특별채권을 발행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국유기업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을 통해 3000억위안(약 56조원) 규모의 자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nomad:

다들 중국이 어렵다 어렵다, 망한다, 망한다 할때...

시리는 올해 중국 바닥에서 탈출한다고 줄기차게 말씀드림.

마자오쉬 中외교차관 30일부터 방미...美中 차관급 협의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초청으로 마 부부장이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며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협의하고, 미국 각계 인사·대표와 접촉·교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제 - 그외 >

주요일정

6월 2일 멕시코 선거(대선 및 총선)

6월 10일 일본) 1분기 GDP

[도쿄증시-마감] 닛케이 이틀째 하락...멈추지 않는 국채금리 상승

닛케이225 지수는 298.50포인트(0.77%) 하락한 38,556.87을, 토픽스 지수는 26.88포인트(0.97%) 내린 2,741.62를 기록했다.

두 지수는 선물 매수세에 힘입어 개장 직후 잠깐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내 약세로 돌아섰다. 일본은행 (BOJ)이 정책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에 국채금리가 연일 오른 영향이다.

일부 플랫폼에서 일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한때 1.08%를 넘어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채금리가 오르자 고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을 중심으로 일부 종목이 고평가됐다는 인식이 나왔고 이는 지수 하락으로 이어졌다.

nomad:

일본 위기에요..

日시장금리, 1.075%로 지속 상승...국채10년물 12년 반만의 최고

장기간 제로 금리 수준에서 움직여온 일본 내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1%를 넘어서고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29일 일본 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전일보다 0.04%포인트 오른 1.075%를 기록했다.

2011년 11월 이후 약 12년 반만의 최고 수준이다.

nomad:

금리가 실질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엔달러가 잡히질 않음... 개 위기..

UBS "RBA, 금리 인상 위험 여전...호주 물가 놀라운 상승세"

호주 물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자 호주중앙은행(RBA)의 금리 인상 경계가 커지고 있다.

29일(현지시간) UBS의 조지 타레노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높고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문제가 된다면 RBA가 향후 몇 달 동안 금리를 25bp 인상할 수 있는 위험은 여전히 남 아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네옴시티 자금난 해결?..."사우디 아람코 최대 27조 주식 매각 곧 발표"

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사우디가 이르면 이번 주 최소 100억달러에서 최대 200억달러 상당의 아람코주식 매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아람코는 지난 2019년 IPO 당시 294억달러의 자금을 조달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IPO 기록을 세운 바 있다. 만약 아람코의 이번 주식 매각 규모가 200억달러가되면 이 역시 세계 최대 규모의 주식 매각이 된다.

이스라엘, 라파 난민촌 또 공격...탱크 진격 등 지상전 본격화

28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인도주의 구역'으로 지정한 라파 북서쪽 알마와시의 피란민 텐트촌이 이날 네 차례 포격을 받아 최소 21명이 사망하고 64명이 다쳤다. 이스라엘은지난 6일 라파 동부에 지상군을 투입하며 이곳 민간인들에게 알마와시로 대피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국제사회가 일찌감치 경고했던 민간인 피해가 지상전 개시로 점차 현실화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은 군사작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이스라엘군 탱크는 알아우다 모스크가 있는 라파 중심부까지 진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군은 이미 라파에 투입된 5개 여단에 더해 병력을 추가했으며, 라파에서 무장세력과 '근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고위 관리 "가자지구 전쟁, 올해 안에 안 끝난다"

하네그비 보좌관은 2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과의 인터뷰에서 전쟁이 "적어도 7개월은 더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내에서 '필라델피 통로'의 75%를 통제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모든 통로를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필라델피 통로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국경의 완충지대다.

• 관련주

- ∘ [특징주] 흥구석유, 세계적인 원유 생산량 감산 기조에 수혜 기대 '상승'
- ∘ [특징주] '한국석유' 비축유 방출 효과 떨어지니 다시 투자자 주목 받아
- ∘ [특징주] 중앙에너비스, EU '러시아산 원유 제재 논의 본격화' 강세
- 。 [특징주] SH에너지<u>화학, OPEC 러시아 원유 공급감소 대체 불가..최악 오일쇼크 가능↑</u>
- 「특징주]큐로홀딩스, 美역대 최대 규모 해양 석유·가스 시추 허가 서명.美큐로컴에너지 보유↑
- · [특징주] 극동유화, 러시아 전쟁 고조... 국제유가 사상 최고가 150달러 전망에 '수혜주' 부각
- ∘ [특징주] 흥아해운, 2000원대 재진입...18% 급등
- [특징주] 미·영 후티 근거지 공습 소식에 국내 1위 가스선 보유사 KSS해운 강
- [특징주] 대한해운, 컨테이너 운임지수 최고치 경신에 '급등'
- 팬오션과 해운업 시너지...공정성 논란 딛고 초대형 선사로
- [특징주] HMM·대한해운·팬오션·KSS해운...'해운주' 고공행진
- ∘ [특징주] STX그린로지스, '홍해발 물류 리스크' 해상 운임 급증에 수혜주 부각
- ∘ [특징주] 티케이케미칼, '홍해 리스크'에 2조 대어 SM상선 부각 '강세'

"이, 자국 전쟁범죄 조사 ICC 전현직 검사장 통신 9년간 감청"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스라엘 잡지사 '+972' 및 '로컬 콜'과의 공동 취재 결과 이스라엘이 자국을 겨냥한 ICC의 전쟁범죄 혐의 조사를 무산시키기 위해 2015년부터 여러 정보기관을 동원해 ICC 고위 관리들의 통신을 감청했다고 보도했다.

< 원자재 >

주요일정

6월 1일 OPEC+ 회의

Oil holds gains as OPEC+ expected to keep output cuts in place

OPEC+의 감산 유지 예상으로 유가 상승세 유지

수요일 유가는 주요 산유국들이 이번 주 일요일 회의에서 감산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여름 성수 기가 시작되면서 연료 소비가 증가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84.22달러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선물은 1센트 상승한 79.84달러.

Oil storage rise supports case for keeping OPEC+ cuts, sources say | Reuters

원유 저장 증가는 OPEC+ 감산 유지를 지지하는 근거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연약한 연료 수요로 인해 4월까지 글로벌 원유 재고가 증가함에 따라 OPEC+ 산유국들이 6월 2일 회의에서 감산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OPEC+ 대표단과 애널리스트들이 밝혔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가 이끄는 동맹국인 OPEC+는 일요일 만나 공급 정책과 자발적 감산 연장 여부를 논의합니다.

OPEC+ 소식통들은 이달 초 산유국들이 감산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Gold slips on higher dollar, Treasury yields; U.S. PCE data in focus

달러, 국채 수익률 상승에 금값 하락; 미국 PCE 데이터 주목

수요일 금값은 달러 강세, 채권 수익률 상승,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를 앞둔 연방준비제도 관계자의 매파적 발언이 시장 심리에 부담을 주면서 하락했습니다.

현물 금은 온스당 \$2,338.01로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미국 금 선물은 0.8% 하락한 \$2,337.60을 기록 했습니다.

뜨거운 금·원유·구리...원자재랠리에 잇단 베팅 ★

28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솔리타 마르첼리 UBS글로벌웰스매니지먼트 미주지역 최고투자책임 자(CIO)는 이날 투자자 메모에서 "UBS CMCI 종합지수가 올 들어 11% 가까이 올랐지만 향후 6~12개월 간 10%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르첼리 CIO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가 감산을 연장하며 원유 선물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월가에선 올 들어 이날까지 25.3% 오른 구리 가격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 금 관련주 : 엘컴텍, 아이티센
- 구리 관련주 : 이구산업, KBI메탈,대창, 서원, 국일신동, 이브이첨단소재, 풍산
- 알루미늄 관련주: 피제이메탈, 조일알미늄, 한주라이트메탈, 대호에이엘, 알루코,케이피티유, 남선 알미늄, 삼아알미늄, DI동일, 삼보산업, 우수AMS, 삼목에스폼, 금강공업

• 리튬 관련주: 하이드로리튬, 리튬포어스, 금양, 이엔플러스, 이브이첨단소재, 성일하이텍, 새 빗켐,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엠텍, 포스코홀딩스, 웰크론한텍, NPC, KG케미칼, KC코트렐, 대보 마그네틱, 영화테크, 파워로직스, 유일에너테크, 코스모화학

BHP walks away from \$49 billion pursuit of mining rival Anglo | Reuters

BHP, 광업 라이벌 앵글로의 490억 달러 추격에서 벗어나다

광업 그룹 BHP 그룹은 수요일 490억 달러 규모의 라이벌 기업인 앵글로 아메리칸을 인수하려는 계획에서 손을 떼고, 시간을 더 달라는 마지막 요청을 거부하면서 6주간의 추격전을 일단락 지었습니다.

BHP의 목표는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앵글로의 귀중한 구리 자산을 확보하고 청정 에너지와 전기 자동차로의 글로벌 전환의 중심이 되는 금속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앵글로가 남아프리카의 백금 및 철광석 사업을 분리해야 하는 BHP의 거래 구조가 협상 결렬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오렌지주스 가격 사상 최고...브라질 기상악화·과수병 겹쳐

오렌지 수출 1위 국가인 브라질이 기상악화 피해를 본 데다 감귤나무에 치명적인 황룡병(감귤녹화병)까지 번지면서 오렌지주스 선물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 국방 >

北살포 '오물 풍선' 260여개 발견...새벽엔 GPS 전파교란 공격도(종합3보)

북한이 오물과 쓰레기를 담아 남쪽으로 날려 보낸 대형 풍선이 29일 전국에서 260여 개가 발견됐다. 북한이 2016~2017년 연간 1천 개가량의 풍선을 내려보냈던 것과 비교하면, 하루 새 수백개의 풍선을 살 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u>'대남 오물 풍선', 접경지 이어 경남북·전북 등 전국서 발견(종합)</u>

북한 '오물풍선' 살포 속 美공군에 2대뿐인 정찰기 또 출격

김정은 "정당한 위성발사에 韓무력시위, 용서못할 불장난"(종합)

"한중일 공동선언 '비핵화' 거론 비판한 北, 북중간 균열 노출"

북한이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의 '비핵화' 언급에 강하게 반발한 것은 북한과 중국이 핵무기를 놓고 여전히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해외 전문가들이 진단했다.

북한 전문 사이트 38노스의 선임연구원인 레이첼 민영 리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한중일 정상회의 종 료 직후 정찰위성을 쏘아 올린 것도 우연이 아니며, 중국에 대한 메시지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단독] "전술핵 한반도 배치도 선택지...미 국방비 절반으로" ★

올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트럼프가 재집권 시,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대행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미국의 전술핵 한반도 배치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문가 "김정은, '성공적 딜' 확신 때만 트럼프와 협상"

테리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미사일 개발 등 레버리지(지렛대)를 키운 다음에 협상하려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정은이 계속 도발한다면 트럼프도 협상테이블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큰손' UAE, 무기류 관세도 철폐...K방산 중동 수출길 넓어진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 양국이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되면, 2개월 후 협정이 발효된다.

무기류는 의료기기, 선박용부품 등과 함께 협정 발효 시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13개 품목에 포함됐다. UAE 수출을 추진하는 국내 방산업체들로서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수출 기회가 더 넓어지는 셈이다.

< 정부정책 >

주요일정

5월 30일 카타르 경제실무단, 방한(~31일)

5월 30일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발표

6월 2일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6월 4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5일)

6월 4일 한-아프리카 인프라 투자 포럼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아랍권과 첫 자유무역협정(종합)

이는 우리나라가 아랍권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전체로는 24번째 자유무역협정이다.

한-UAE 간 CEPA가 발효되면 양국은 향후 10년에 걸쳐 상품 품목 수 기준 각각 92.5%, 91.2%의 시장을 상호 개방하게 된다.

아울러 무기류와 10인 이상 대형 전기차·의료기기·의약품·화장품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기계류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 및 부품, 가전제품 등도 최장 10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또 인삼류·조미김·멸치·전복 등 우리 주요 농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보게 된다.

UAE, 한국에 8조 투자 검토...2조 규모 LNG선 수주 가시권★

중동 가는 K-스마트팜...건설과 동반진출 '잭팟' ★

국내 스마트팜 기업들의 중동 수출이 이어지면서 건설 업체들도 동반 진출을 통한 성과를 내고 있다. 정부는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를 위한 지원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계약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스마트팜 건설에 도화엔지니어링이 참여한다는 것이다. 국내 스마트팜 수출·수주 실적이 해외 건설 수주 실적으로 연결되는 셈이다. 양 사는 올해 정부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 지원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도하엔지니어링은 이번 계약을 계기로 향후 중동 내 다른 스마트팜 프로젝트 사업 진출도 논의 중이다. 현재 정부는 컨소시엄당 국비 60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 규모의 매칭펀드를 조성해 만나CEA·도화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포함한 총 4개 컨소시엄 프로젝트를 전담 지원하고 있다.

한미일 산업장관 회의, 내달 26일 개최 예정 -日언론(상보)

한국·미국·일본 3국이 내달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산업장관회의를 여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FNN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안덕근 한국 산업통장사원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사이토 겐 경제산업상은 7월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반도체 등 공급망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전망이다.

강원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에 135조원 투자한다

이 종합계획은 지난해 2차 개정한 강원특별법이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맞춰 특례사항 등을 반영한 법정 계획서로서 산업구조 개편, 관광시스템 개편, 역세권 중심 공간구조 개편을 핵심 축으로 하고있다.

도는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미래에너지, 푸드테크에 ICT를 융합해 미래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중심의 산업구조로 개편할 계획이다.

[단독] "약 배송 규제 풀어야"...의사들, 1년 만에 달라졌다★

비대면 진료와 함께 의약품 배송을 경험한 약사 10명 중 6명이 약 배송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 등 직역 단체들이 약 배송에 강경하게 반대하는 것과는 다른 현장의 목소리가 확인된 셈이다.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의사 10명 중 7명도 현재 대면 수령으로 묶여 있는 약 배송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환자도 약 배송에 긍정적이었다. 방문 수령과 약 배송을 모두 경험한 환자의 83.7%는 약 배송에 더 만족했다. 92.7%는 약 배송이 허용된다면 비대면 진료를 더 자주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관련주:

- ∘ [특징주]블루엠텍, 비대면 진료 필수 약배송 허용..여당 총선 정책 공약 진행↑
 - 블루엠텍은 비대면 진료에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는 전문의약품 온라인 플랫폼, 전문의약품 통합검색시스템, 제약사와 병원 간 직거래 시스템 등의 플랫폼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가 운영 중인 비대면 의약품배송 플랫폼 '블루팜코리아'에선 의약품, 의약외품, 소모품 등 5만 여종을 다루고 있다. 가입 의사 회원 수만 2만5000명에 달한다.
- [특징주] 제이브이엠, 아마존 500조 온라인 약국시장 진출...조제 자동화시스템 부각↑
- [특징주]인성정보, 정부 비대면 진료 환자 범위 대폭 확대 추진 소식에↑
- [특징주] 비트컴퓨터,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가속도 예상에 강세
- [특징주] 유비케어, 의정협의체 오늘 재개... 비대면 진료 논의 예정에 강세
- · [특징주] 케어랩스, '의사 집단 파업' 의료 대란 조짐... 환자-병원 연계 플랫폼 '굿닥' 부각
- · [특징주] 토마토시스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마련... 원격진료 서비스 개발 부각
- [특징주] 라이프시맨틱스, 의료대란 현실화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콜' 부각
- · [특징주] 인피니트헬스케어, 비대면 산업 육성 관련 정부 관계자 방문 소식에 상승

< CO2 / 신재생 >

주요일정

5월 30일 원전 로드맵 수립 2차 회의

5월 30일 <u>제3회 청정수소교역 이니셔티브포럼 - 글로벌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의 장 열</u>려

6월 3일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5일)

6월 11일 영국 원전기업단 방한(~14일)

한·UAE, 제3국 원전 진출부터 청정수소 생산까지 손 맞잡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이날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정식 서명한 데 이어 '탄소 포집·저장(CCS)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UAE원자력공사(ENEC) 및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와 제3국 원전 공동진출 협력 등에 관한 총 6건의 기업 간 MOU도 체결됐다.

• 워전 관련주

- ∘ [특징주] 지투파워, 한수원 폴란드 원전 건설 사업 LOI 예정 소식에 강세
- ∘ [특징주] 한전기술, 탄소중립 위<u>한 원자력 필요성 부각에 '신고가'</u>
- ∘ [특징주]한전산업, 탄소중립 핵심 'SMR' 620조 시장...美中 기술확보전
- [특징주] 中 대규모 원전 건설 계획...두산그룹株 강세
- [특징주] 광명전기, 한수원 체코 원전 참여 소식에 ↑ ...부품 납품 부각
- [특징주] 보성파워텍, 8조원 규모 체코 원전사업 수주 기대감에 급등
- ∘ [특징주] 우진, 정부 SMR 개발계획에 원전 계측기 공급 부각
- [특징주]우리기술, 한전 54조 운영권...원전 핵심기술 국산화 부각 ↑
- ∘ [특징주] 한신기계, 원전 호재에 따른 '콤프레샤 원천기술 보유' 수혜주 부각
- · [특징주] 비에이치아이, 핵연료 저장 기술 보유...한-미 재활용 기술 승인 소식에 상승세
- 。 [특징주]일진파워, SMR서 한발 더...'꿈의 에너지' 전세계서 주도 적극지원
- 。 [특징주]서전기전, 워자력 전기부문 최고 등급 인증...워전株 랠리 바톤터치
- [특징주] 이디티, 두산중공업에 원전 터빈제어시스템 공급 부각 강세 (현 휴센텍)
- 조광ILI, 원전 최대 수혜 두산중공업에 안전밸브 납품 부각...강세
- · [특징주]비엠티, 원전 핵심 부품 대기업 및 한수원 납품 소식에 강세
- (2006.10.24)성광벤드, "2010년까지 중동 특수 수혜 기대"(VOD)_
- [특징주]세아베스틸, 세계최초 핵연료 재활용 승인...고연소 원전연료 운반용기 납품 부각
- [특징주]에너토크, 문 대통령 UAE 순방 원전 외교 가동에 '강세'
- · [특징주]오르비텍, 방사능 관리 특허 30여개 보유 원전 관련주 부각에 강세
- · 금화피에스시,한국수력원자력발 <u>발전소 시운전, 경상정비, 계측제어설비정비 용역사업 영위</u>
- 。 [특징주] 우원개발, 신고리 5·6호기 수주...원전 재개로 40조 원전 수출 기대감↑
- [특징주] 삼영엠텍, 원자력 발전소 건설 핵심 내진 설계... 터빈 공급사 수혜 부각
- [특징주]대창스틸, 송영길 대표 "원전 활용 불가피" 시사...'한국형 원전 국내독점스펙' 부각
- [특징주] 하이록코리아, 원전용 피팅·밸브생산 승인...한전 협력사로 부각
- 티플랙스, 원전 핵심 밸브 상장사 유일 생산...전기차 배터리 소재 월 50톤 대기업에 공급
- [특징주] 세보엠이씨, 원전산업 호재 속 신월성원자력 공사 수주 부각↑
- [특징주] 디티앤씨, 원전 활성화 기대감에 급등세
- (17.10.20)[특징주] 비츠로테크, 신고리 5,6 호기 저압차단기반 공급↑
- (16.12.23)선도전기, 한국수력원자력과 237.2억 규모 공급계약 체결
- ∘ [특징주] SNT에너지 10% 상승 '원자력발전소 탈질설비 설계'
- [특징주] 에이루트, 日원전 재가동 추진에 우진기전 UAE 원전 프로젝트 참여 부각

- ∘ [특징주] 태광, 에너지 대란 원자력 대체재 부상..원자력 발전 플랜트 납품 부각↑
- ∘ [특징주]수산인더스트리, 한미'SMR원전 협력' 국내 유일 원천기술 보유 '강세'
- 。 [<u>특징주]씨앤투스, 尹정부 美 SMR 4조 수주임박...세계 1</u>위 SMR 기업 지분투자 부각 '강세'
- [특징주]슈어소프트테크, 美 SMR 뉴스케일·신한울 3,4호기 원전 기술 공급 부각 '강세'

• 탄소 관련주

- [특징주]韓 '탄소중립' 선언에 그린케미칼 등 장 초반 강세
- ∘ [<u>특징주]한솔홈데코, 대선주자 '탄소중립' 강화...EU도 탄소배출권 구매 의무</u>
- 。 [특징주] KC그린홀딩스, 中 시진핑 탄소배출권 거래제 본격 도입에 ↑
- 。 [급등락주 짚어보기] 빈 살만 "탄소포집기술 협력 희망" 발언에 KC코트렐 '상한가'
- ∘ [특징주] 탄소포집 핵심 소재 M/S 세계 1위 유니드 주목
- · 후성 주가 4%↑..."EU 이어 美도 탄소국경세 추진"
- ∘ [특징주] DL이앤씨, 서해그린환경과 탄소포집 업무협약 체결...현재 주가 시황은?
- ∘ 탄소중립 관련주 "문재인 정책역량 집중" 에코프로·휴켐스·신성이엔지 등
- ∘ [특징주] 롯데케미칼, 탄소 포집·활용 설비 실용화 소식에 '강세'
- ∘ [특징주] TKG휴켐스, 탄소배출권 가격 급등에 강세
- ∘ [특징주]켐트로스, 탄소중립·기술독립 시작점...핵심소재 국산화에 '러브콜'
- [특징주] '탄소중립 관련주'로 주목... 국영지앤엠 '강세'
- ∘ [특징주] 유니드, 탄소 중립 관련주 부각에 15%↑
- ∘ [특징주]코프라, 탄소중립 정책 수혜주 '부각'
- ∘ [특징주]누보, 정부 세계최초 탄소중립 바이오차 상용화 추진...정부 승인 소식에
- 。 [<u>특징주]우듬지팜, AI 스마트팜 전세계 식량난 해결하고 탄소배출권까지 ↑</u>
- ∘ [특징주]에코아이, 돈 잘버는 '배출권계 1인자'...미·중 기후위기 공동대응 수혜
- 。 [<u>특징주]동방,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소식에↑</u>
- ∘ [특징주]클라우드에어 상한가..탄소포집 기술 주목
- ∘ [특징주]에코바이오,동해 가스전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사업 추진에 연이틀 '급등세'

New Big Nuclear Reactors Get Support From Biden Administration - BNN Bloomberg

새로운 대형 원자로가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을 받다

백악관은 수백억 달러가 소요되는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산업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원자로 건설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내 핵 배치에 관한 백악관 정상 회담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건설을 지원하고 지연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 연구소에 따르면 이 조치는 일부 전력회사가 대규모 원자로 건설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Biden administration expands tax credits beyond wind, solar | Reuters★

바이든 행정부, 풍력, 태양광을 넘어 세액공제 확대

바이든 행정부는 수요일 핵분열과 핵융합을 포함한 광범위한 청정 에너지 기술을 포괄하기 위해 수년간 미국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해 온 세금 공제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재무부는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따라 만들어진 청정 전기 생산 세액공제 및 청정 전기 투자 세액공제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으며, 이는 이전에 사용 가능했던 풍력 및 태양광 생산 및 투자 세액 공제가 일몰됨에 따라 2025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u>Germany to Fast Track Hydrogen Projects to Cut Carbon Emissions - Bloomberg</u> 독일,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수소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다 독일은 화석 연료 집약 산업을 정화하기 위해 수소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탄소 포집 및 저장 금지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독일 정부는 수소 생산, 저장 및 운송에 대한 환경 검사를 단축하여 개발 허가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할 것입니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영국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65% 감축하여 유럽연합보다 5년 빠른 2045년까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청정수소 선두주자 美·中·유럽, 6년 내 공급량 80% 차지할 것" ★

에너지 분석 기관 블룸버그NEF는 최근 발표한 '2024 수소 보고서'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이 2030년까지 전 세계 청정수소 공급량의 8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청정수소란 화석연료를 개질하거나 정제할 때 나오는 그레이수소에서 탄소를 탄소 포집·저장(CCS) 기술로 가두는 '블루수소'와 재생에너지 전력을 통해 순수한 물을 전기분해해 생산한 '그린수소'를 의미한다. 미국에선 더 넓은 의미로 원자력발전으로 수전해 설비를 가동해 생산하는 '핑크수소'를 포함한다.

에어컨 못 <u>틀면 어쩌나...'역대급 폭염' 앞두고 '초비상'</u>★★★

텍사스 전력 수요는 지난 20일 7만2261메가와트(MW)로 2022년 5월 최고치(7만1645MW)를 넘어섰다. 로이터는 "텍사스의 경제 성장 및 인구 증가, 데이터센터·인공지능(AI)·암호화폐 채굴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로 올여름 전력 소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어 멕시코에선 수년간 전력 생산 인프라가 개발되지 않은 데다 물 부족으로 수력 발전도 줄면서 올여름 전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nomad:

이거 제가 아마 월요일에 예측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에어컨 관련주들은 어제 LG냉방공조로 올라갔지요.

• 관련주:

- 。 [특징주]제룡전기, AI 성장에 변압기 가격지수 '사상 최고가'...배전 변압기 100% 유일 상장사
- · [대가의 선택] 제룡산업, 금속 사업 호조...최대주주 지분 확대
- [특징주] 일진전기, 미국 AI·전기차 시장 성장에 전력수요 급증...해외수주 잔고 1조3000억 돌파
 부각
- ∘ 조석 HD일렉 사장 "5년 주<u>문 꽉 차있어...美 AI 열풍에 공장 신·증설도 검토"</u>
- 효성중공업, 초고압 변압기로 세계 시장 공략 박차
- · [종목이슈] 바이오스마트, 초고압변압기 발전기용 동 구리 소재 독과점...시총이 800억 '흙속의 진 주'
- 미국 인프라-유럽 신재생에너지 확대, 대한전선 해외사업 순풍 분다.
- ∘ [스몰캡 우량주] 가온전선, 국내 3대 전선업체...작년 영업익 78%↑
- ∘ LS전선, 525kV 초고압 송전케이블 인증...상용화 채비
- 。 [특징주]서남, '꿈의 초전도 선재' 경쟁사 대비 최고 10배 생산속도..LS전선과 대량생산 협의 부각 ↑
- <u>대원전선, 자동차 케이블로 주력 품목 전환...내년매출 6500억 목표</u>
- 세명전기, 국가 핵심 전력 프로젝트 HVDC 송전선로 금구류 개발...승인 절차 진행 중
- 피앤씨테크, 한국전력 고객사 바탕으로 체코 원전 수주 주력
- (다각화바람)광명전기, 해외시장 개척 · 친환경제품 개발로 승부수
- 비츠로테크, 배전반사업 독립...지주사 체제 정비
 - [특징주] 비츠로테크,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사와 '1조 규모' 발전기 시장 선도 '주목'

- 서전기전, 원전 필수 배전반 생산…"공공기관 입찰제한 전 매출 확보 50% 증가"
- ∘ 지투파워, 국내 최초 NEP인증 AI배전반 데이타센터 고객사 요구 대응 위해 업데이트 나서
- [특징주] 제일전기공업, 美 최대 전력관리사 이튼과 AFCI PCB 독점 공급 기대감에 상승세
- 보성파워텍, 전기요금 정상화에 흑전...물가연동제로 이익 기반 마련
- · <u>'전기공사 전문' 금양그린파워, 3월 코스</u>닥 상장

LS, 28兆 시장 정조준...英에 세계 최대 초고압케이블 공장 건설

29일 업계에 따르면 LS는 영국 글로벌인터커넥션그룹(GIG)과 합작회사 LS에코어드밴스드케이블을 세우고 영국 현지에서 HVDC 케이블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 규모는 9억2300만파운드(약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에서는 해상풍력 발전 전력망을 위한 HVDC 해저케이블을 주로 생산할 것으로 전해졌다.LS

LS그룹은 인공지능(AI)산업 확산으로 전력 인프라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요 사업이 초호황을 맞고 있다. LS일렉트릭은 내년까지 803억원을 투자해 부산사업장의 초고압 변압기 생산 능력을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 2026년까지 확보한 수주 물량을 소화하려면 증설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래차 >

주요일정

6월 5일 LG전자, '오토테크디트로이트' 첫참가

테슬라, 2170 배터리 업그레이드...韓 소재 적용 확대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가 2170(지름 21mm·높이 70mm) 원통형 배터리 성능 개선에 착수했다. 전기차 주행거리 향상을 위한 소재 개편에 나서면서 국내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기회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 연말에 업그레이드된 2170 배터리를 선보이기 위해 협력사와 제품 출시를 논의 중이다. 전기차가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기)'에 놓였지만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차량에 대한수요는 유효한 만큼 테슬라는 배터리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nomad:

에스엠랩과 접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정부, 전고체배터리 R&D에 1조원 투자...업계 최대 규모"

중국 정부가 차세대 전기차의 핵심 분야인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R&D)을 독려하기 위해 업계 최대 규모인 약 60억위안(약 1조1천2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소식통을 인용해 오늘(29일) 보도했습니다.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차이나데일리에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CATL과 웰리온 등 배터리업체와 비야디(BYD), 디이자동차(FAW), 상하이자동차(SAIC), 지리자동차등 자동차업체의 최소 7개 프로젝트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 관련주

- · [특징주] 레이크머티리얼즈, 전고체 핵심 원료 개발... 올해 양산 준비 소식에 강세
- [특징주] 한농화성, 삼성SDI 전고체 배터리 샘플 출하 소식에 핵심 소재 개발 부각
- 재상장 첫날 상한가 친 이수스페셜티케미컬
- 미래컴퍼니, 전고체 전지 정부 과제에 대해 삼성SDI와 민간 협약 체결
- ∘ [특징주] 필에너지, 삼성SDI 전고체 배터리 양산... 2대주주 전고체 설비 이력 부각
- ∘ [특징주] 유일에너테크, 현대차 전고체 배터리 조립 장비 단독 수주 소식에 '상한가'
- 엠케이전자, '실리콘 음극재'로 전고체 배터리시장 길을 열다

[특징주] 미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용 고체전해질 상용화 추진에↑

세코닉스 "전장용 렌즈 초격차로 시장 선점"

회사는 2002년 국내 최초로 모바일용 카메라 렌즈를 개발·생산해 삼성전자에 공급했다. 현대자동차 팰리 세이드에 장착된 카메라 렌즈 역시 세코닉스가 만들었다. 2018년에는 미국 엔비디아가 제조한 자율주행 차용 보드에 사용되는 카메라 모듈 샘플을 납품한 이력도 있다.세코닉스는 국내 광학부품기업 가운데 전 장용 렌즈와 모듈을 함께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다.

[영상] 피엔티, 美대형 고객사로부터 배터리 장비 물량 수주★

피엔티가 건식 전극공정용 장비 관련 대형 수주를 따냈다. 미국의 글로벌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를 고객사로 확보했다. 이수환 전문기자는 지난 28일 방송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올해 1분기에계약이 성사되었다"며 "규모는 수백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이는 1차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테슬라의 기가 텍사스 공장에 장비가 공급될 예정이며, 추가 발주도 기대되고 있다.이번에 공급된 장비는 테슬라의건식 전극용 장비로, 이는 기존 습식 공정보다 생산성이 높고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이수환 전문기자는 "테슬라가 건식 전극을 대규모로 양산하는 것은 매우 혁신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 우주 항공 >

주요일정

6월 1일 <u>보잉 우주선 '스타라이너' 첫 유인 시험비행</u> 6월 5일 <u>스페이스X 화성 우주선 스타십, 4번째 시험비행</u>

<u>中 선저우 18호 비행사, 8시간반 우주유영..."中</u>자체 최장 기록"

중국의 유인우주선 '선저우(神舟) 18호' 비행사들이 첫 우주유영에 성공했다고 중국 매체들이 29일 보도했다.

선저우 18호 비행사들이 우주정거장 밖에서 유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 비행사들의 우주유영 가운데 최장 시간 기록도 달성했다.

< 삼성전자 / 반도체 >

주요일정

6월 4일 컴퓨텍스 2024(~7일)

6월 7일 삼성전자 노조, 단체 연차 사용

6월 12일 삼성 파운드리 포럼(SFF) 2024

1분기 글로벌 낸드 매출, 전 분기 대비 28% 증가... "SSD 주문 확대 영향"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1분기 전 세계 낸드 매출은 작년 4분기보다 28.1% 증가한 147억960만달러(약 20조원)를 기록했다.트렌드포스는 "2월부터 인공지능(AI) 서버에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대량 주문이 발생했다"며 "PC와 스마트폰 고객들도 가격 상승세관리를 위해 재고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삼성전자의 1분기 낸드 매출은 54억달러(약 7조원)로전 분기보다 28.6% 증가했다. 고객사들이 재고를 늘리고 기업용 SSD 주문이 늘었다. 삼성전자의 낸드시장 점유율은 36.7%로 1위 자리를 유지했다.SK하이닉스와 자회사 솔리다임의 1분기 매출은 32억7200만달러(약 4조원)로 전 분기 대비 31.9% 늘었다. 시장 점유율도 21.6%에서 22.2%로 상승해 2위를 지켰다.

nomad:

싼 제품이 팔리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 이야기는 재고 소진이 돼간다는 뜻입니다.

말레이도 반도체 강국 도약 노린다..."150조원 투자 유치 목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최소 5천억링깃(약 145조원) 규모 투자를 유치해 반도체 설계,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 반도체 제조 장비 산업 등에 투입하겠다고 전날 밝혔다.안와르 총리는 쿠알라룸푸르말레이시아국제무역전시센터(MITEC)에서 열린 반도체 업계 행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반도체전략(NSS)을 공개했다.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를 글로벌 반도체 연구개발(R&D) 허브로 발전시키고, 반도체 엔지니어를 6만명 이상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MS·구글·메타 'GPU 사재기'..."엔비디아 주가 더 간다"★

톰 리 펀드스트랫 설립자는 1990년대 시스코와 AI 시대 엔비디아를 비교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봤다. 인터넷이 부상하면서 시스코 주가가 크게 뛰었듯이, AI 시대에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 시스코의 PER이 100배까지 뛴 것에 비하면 엔비디아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벤 라이치스 멜리우스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의 세금 및 이자 차감전 순익 마진 69%는 놀라움 그 자체"라고 말했다.

<u>엔비디아쮽 AI파티...초대장 받지 못한 삼성전자</u>★

모건스탠리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엔디비아발 AI 특수에 따른 수혜주에 SK하이닉스를 포함시켰다. 모건스탠리는 향후 SK하이닉스의 주가 추가 상승 여력이 33%에 달한다고 평가했다.모건스탠리는 SK하이닉스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하며 "엔비디아의 고성장과 주가 상승은 시장의 투자 수요가 얼마나 높은지 말해준다"며 "아시아 AI 공급망 주식은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다"고 썼다.삼성전자는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AI 수혜주 추천 목록에서 빠졌다. 삼성전자가 아직 HBM 양산 체제를 갖추지 못하면서 추천 종목에서 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에 이어 SK하이닉스도 1c D램에 '인프리아 MOR' 적용한다★

D램의 미세화가 지속됨에 따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기업들이 신규 소재 개발 및 적용에 힘쓰고 있다. 특히 차세대 포토레지스트(PR) 중 하나인 금속산화물레지스트(MOR)에 대한 관심이 높다. SK하이닉

스는 차세대 D램 양산에 극자외선(EUV)용 MOR을 채택하며, 삼성전자도 EUV용 MOR 적용을 검토 중이다. D램 양산에 MOR이 쓰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닝 "반도체에 유리 더 필요할 것...유리기판 사업 진출하겠다"★

- 시간외: 제이티 (+9.98%)(112K) / HB테크놀러지 (+3.79%)(519K)
- 관련주:
 - - 반도체 검사장비 기업 제이티는 코닝에 UTG 레이저 커팅장비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이티가 납품한 장비는 레이저를 사용해 UTG 공정에 사용하는 글래스 원장을 자동으로 커팅하는 장비다.
 - (24.04.08)[특징주]제이앤티씨, 수백조 유리기판 시장 선점...8월 데모라인 구축
 - 장 회장은 "오는 8월까지 유리기판 생산을 위한 데모라인을 만들 예정"이라며 "샘플이 나오면 고객사와 협의해 설비 투자 규모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연말엔 유리기판 양산을 위한 베트남 5공장 착공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규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닝, 쇼트, 아사히 글라스가 유리 원장을 제이앤티씨와 같은 유리 가공 업체에 공급한다"며 "이후 제이앤티씨는 TGV 장비와 엣칭장비를 각각 필옵틱스, 켐트로닉스 로부터 공급받은 뒤에 공정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 코닝과 손잡은 제이앤티씨...올해 호실적 기대감↑
 - 제이앤티씨는 지난달 글로벌 강화유리 제조사인 미국 코닝사와 미래 특수유리 개발 및 제조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제휴 강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코닝은 지난 1851년 설립된 글로벌 유리 전문 제조기업이다. 글로벌 1위 유리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 · <u>하나증권 "유티아이, 글로벌 폴더플본 성장 수혜↑ UTG 매출 내년 본격화"</u>
 - 유티아이는 지난 9월 글로벌 디스플레이 글라스 M/S 1위 기업인 '코닝'으로부터 시설 투자 및 운영 자금 활용을 목적으로 357억원의 제 3자배정 유상증자 투자를 받았다.최 연구원은 "코닝과의 협업은 가파르게 확장되고 있는 UTG 제품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유티아이와 지속적인 전략적 협업을 위한 것"이라며 "현재 유티아이는 글로벌 IT 기업 고객사향으로 UTG 제품의 모든 퀄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전했다.
 - 회림, 미 코닝과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신제품 시장개척・연구개발 등 협력

[단독] 티이엠씨, 美 마이크론에 '반도체 핵심' 네온가스 전격 공급..."현지 독점 리사이클링도 논의"★ 티이엠씨(425040)가 국내 대표 반도체 '쌍두마차'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넘어 미국 마이크론까지 고객사를 확장한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티이엠씨가 미국 마이크론에 반도체 필수 원료인 네온(Ne)가스 초도 물량을 공급 완료했다. 아울러 네온가스 재활용과 관련해서도 힘을 합친다는 계획이다.

"7만전자는 웁니다"...반도체 전쟁 다급한데 첫 파업선언까지 터졌다.

전삼노는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내달 7일 단체 연차를 파업의 시작점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 숙박 농성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삼성 전자에는 5개 노조가 활동 중인데, 조합원 수가 2만8000여 명에 달하는 전삼노가 대표 교섭권을 갖고 있다.한편 이날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소수 노조 측은 이번 파업의 순수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신생노조를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전삼노 행보와 민주노총 회의록을 보면 직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상급단체(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 그 목적성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u>반도체 볼모로...돈 더 달라는 노조·1등 기업 노린 민노총 '합작'</u>

전삼노가 민노총과 가까워진 데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조합원 이탈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민노총은 '삼성 노조 포섭' 전략을 마련해 반전의 계기로 삼고 있다. 전삼노의 파업 선언 배경에 민노총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일각에선 민노총과 전삼노가 국가 기간 산업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볼모로 '정치 파업'을 벌일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내놓는다. 이날 전삼노는 '6월 7일 동반 연차 사용'이란 파업 관련 1차 지령에 더해 2차, 3차 지령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기흥캠 방사선 피폭 사고 하루 지나서 인지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이 손 부위가 엑스레이(X-ray)에 노출되는 사고가 났다.이들 직원은 방사선 피폭을 모른 채 일을 마쳤고, 하루 뒤인 28일 오후 손이 부어오르는 등 신체에 이상이 감지되자 사측에 보고했다.

< AI / 로봇 >

주요일정

6월 5일 인텔 AI 서밋

6월 10일 애플 세계개발자대회WWDC(~14일)

6월 11일 2024 자율제조 월드 콩그레스

삼성 뒤쫓아 ... 애플도 구형폰에 AI 장착★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6월 열릴 연례개발자대회(WWDC)에서 AI 기능을 공개할 전망이다. AI 기능은 올해 출시될 예정인 아이폰 16 시리즈뿐만 아니라 지난해 내놓은 아이폰 15 시리즈, 아이패드, 맥 제품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WWDC에서 공개될 신형 운영체제(OS)인 iOS 18을 통해서다.

아이폰 15에 탑재된 A17 칩의 경우 '온디바이스 머신러닝'을 구현할 수 있는 뉴럴엔진을 탑재하고 있어 충분히 AI 기능을 처리할 수 있다

인터넷 없이 작동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를 기본으로 클라우드의 도움을 받는 하이브리드 AI일 것으로 예상된다. 음성 메모를 텍스트로 변환하고, AI로 사진을 보정하거나 이메일, 문자메시지에 대한 답장을 제안하는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블룸버그는 예상한다.

AI 올라탄 애플...아이폰 올라탄 부품주 랠리★

애플이 AI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주가가 급등하자 국내 부품주도 수혜를 입고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일 (현지 시간)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AI에 상장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G이노텍과 비에이치가 아이폰 판매 증가로 직접적인 실적 개선주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LG이노텍은 아이폰16 시리즈에서 화소 수가 상향된 초광각카메라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손떨림보정부품 (OIS)도 추가로 적용해 평균공급단가가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애플에 회로기판을 공급하는 비에이치 역시 애플 제품 내 점유율 증가와 공급단가 상승이 예상된다. 또한 아이패드에도 부품을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다.

<u>선곡 넘어 편곡까지...AI, 음원 판 흔든다</u>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니뮤직의 자회사 주스는 AI를 활용한 편곡 서비스인 '리라'를 7월 정식 출시한다. 김준호 주스 대표는 "추출한 악보를 서비스 이용자끼리 거래하도록 해 음원 저작권자와 수익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미 유튜브에서 음원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창작하는 '커버 문화'가 SNS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며 "틱톡이 숏폼으로 동영상 편집 장벽을 낮춘 일이 음원 시장에서도 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CEO 자리도 넘보는 인공지능...'AI 보스' 시대 오나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가 만든 온라인 학습 플랫폼 에드엑스(edX)가 지난해 7월 CEO 등 8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가 CEO의 역할을 AI로 대체해야 한다고 답했다.

에드엑스 창립자인 아난트 아가르왈은 글쓰기와 업무를 아우르거나 특정 방향으로 권고하는 일 등을 포함해 실제 "CEO가 하는 일의 80%는 AI로 대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I 로봇 전쟁, 클라우드·센서 기업이 승자" ★

세계 1위 로봇 기업으로 꼽히는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케빈 블랭크스푸어 수석부사장은 이날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 작업용 로봇 스트레치와 4족 보행 로봇 개(스폿) 등 오직 로봇만으로 이뤄진 '완전 무인 공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선행연구조직인 삼성리서치 이주호 부사장은 "(NEXT G의 시작점인) 6세대(6G) 통신 기술을 2029년까지 최선을 다해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nomad:

결국 끝판은 휴머노이드.

센서, 카메라, 모터, 감속기 정도가 한국이 할 수 있는 거.

근데 카메라랑 센서는 세계 1위네.

"스스로 판단하는 휴머노이드...곧 서울 한복판 자유롭게 다닐 것"

삼성전자가 지난해 장기적으로 인수 의사를 밝힌 로봇 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이정호 레인보우로보틱스 대표는 "한 가지 임무만 하던 로봇이 1.0 시대였다면 한정된 공간을 이동하며 2~3개의 임무를 하는현재 수준이 2.0"이라며 "사람과 어울리며 독립적으로 판단해 움직이는 휴머노이드가 서울을 돌아다니는 3.0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많은 빅테크 기업이 휴머노이드를 주목하고 있다"며 "서비스 로봇부터 초경량까지 범위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협동 로봇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협동 로봇은 자동차 공장, 물류 현장, 우체국 집하장, 조선소 용접, 요리 등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며 "사회에 투입하려면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형태로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로보토피아 세션 참가자들은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로봇이 인간의 삶에 더 깊숙이 들어온다"며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과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의 융합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IT / 기술 >

주요일정

5월 30일 세계비파괴검사학술대회(~31일)

5월 30일 2024 농식품 기술투자 로드쇼

5월 30일 한국IT서비스학회, 2024 통합춘계학술대회

6월 11일 2024 농업기술박람회(~14일)

"차세대 통신이 완전 자율주행車 핵심 열쇠"

'초연결 시대 게임체인저 넥스트 G' 세션 발표자들은 차세대 통신이 모빌리티뿐 아니라 헬스케어, 도시 인프라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킬 '키'가 될 것으로 봤다. 류탁기 SK텔레콤 인프라기술담당 부사장 은 "6세대(6G) 이동통신 시대엔 지상망 한계를 극복하고 상공망까지 쓸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 가상자산 / 가상현실 >

주요일정

5월 30일 비트코인 서울 2024(~31일)

5월 30일 버추얼 걸그룹 핑크버스 음원 공개

Crypto Fear & Greed Index - Bitcoin Sentiment - Alternative.me



Now Greed Yesterday Greed Last week Extreme Greed Last month Greed Fig. 12 Table 12 Table 13 Table 13 Table 13 Table 14 Table 14 Table 15 Table

7월 법 시행 앞두고...금융위, 가상자산 전담 조직 신설 추진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29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행정안전부와 가상자산 관련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가상자산 전담 부서의 구체적인 인력·예산 등 조직 개편안은 다음 달 말까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 다.

nomad:

가상자산을 할거면, 한국에서는 1도 하지 말고, 글로벌에서 글로벌을 상대로 사업해야 합니다. 한국은 거의 다 사기꾼이고.. 잘되면 잡혀갑니다.

정말 비전이 있다면, 글로벌에서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온텍 "AI 기대감 확대, 'AR 글래스=AI 글래스' 인식 확산"

김보은 대표는 "이달 중순 오픈AI의 챗GPT-4o, 구글의 프로젝트 아스트라 등 AI 관련 대형 발표가 2개있었다"며 "챗GPT-4o는 사용자에게 수학을 가르칠 수 있고, 구글 프로젝트 아스트라는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자와 상호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경우 모두 사용자들이 AR 글래스를 착용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AI 글래스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이어 "AR 글래스를 착용한 사용자가 보는 것을 AI도 보기 때문에, AR 글래스에 카메라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AR 글래스는 디스플레이와 광학 기술 모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하트러브 메타 부사장이 'AR 디스플레이는 엘코스가 먼저 간다'고 밝혔다"며 "엘코스가 외부광원으로 발광다이오드(LED)를 주로 사용해왔지만, 외부광원을 레이저로 바꾸면 더 밝은 디스플레이 구현이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 IP / 엔터 >

주요일정

5월 30일 2024 인디크래프트

5월 31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6월 3일 YG엔터테인먼트, AKMU(악동뮤지션) 세 번째 미니 앨범 'LOVE EPISODE' 발표

6월 5일 스타워즈' 시리즈 '애콜라이트'(The Acolyte) 공개

6월 7일 넷플릭스, 하이라키공개

6월 7일 서머게임 페스트(SGF)(~9일)

서울 찾은 사우디 e스포츠 회장 "한국 게임업계와 협력 확대"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PUBG) 시리즈를 즐기고, T1의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좋아하는 게이머기도 하다.

빈 반다르 왕자는 "e스포츠는 사우디가 글로벌 게임 산업과 통하는 관문이자, 교육·관광·공연·외식산업까지 결합한 복합 산업"이라며 사우디가 게임·e스포츠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민희진 사태' 후 첫 얼굴 드러낸 방시혁...그의 손엔 갤럭시OO [투자360]

가요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오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민희진 현 대표 등 경영진해임안과 함께 김 CHRO를 비롯해 이재상 CSO와 이경준 CFO 사내이사 선임안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김 CHRO는 하이브 사업보고서상 임원 17명 가운데 이미경 사외이사를 제외하면 유일한 여성임원으로 눈길을 끈다.

주요일정

5월 31일 <u>미국임상종약학회(ASCO)(~4일)</u>

5월 31일 HLB 리보세라닙, 항서제약 FDA CRL 수령 예정

6월 3일 BIO USA 2024(~6일)

6월 7일 제21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9일)

6월 10일 휴젤과 메디톡스의 ITC 소송 예비 판결

건강에 돈 쓰는 베이비부머...제약·바이오株 시간 온다

허혜민 키움증권 책임연구원은 29일 '헬스케어 골드러쉬, 인구 구조와 부의 대전환'이라는 제목의 하반기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전망 보고서에서 "슈퍼에이징 시대, 베이비부머가 쌓아온 자산이 헬스케어산업에 몰리고 있다"며 셀트리온, 유한양행, 덴티움, 한미약품 등을 추천했다.그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진 선진국에서는 의약품 청구액이 급증하고 있다"며 "미국 베이비부머(1946~1964년생)의 최대 관심사인 헬스케어 분야에 쓰는 비용이 늘어날수록 자녀에게 상속하는 재산은 줄어든다"고 평가했다. 고소득 국가일수록 의약품 사용량이 많다. 전 세계 제약시장은 2028년 2000조원으로 연평균 6% 커질 전망이다.허 책임연구원은 "기대수명 증가로 암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항암제 시장은 2028년 약 600조원으로연평균 14~17% 커질 전망"이라며 "향후 5년 동안 항암제 신약이 100개 이상 출시될 전망"이라고 했다.이 같은 흐름에 따라 유한양행도 상당한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이 회사의 폐암 신약 '렉라자'는 오는 8월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다.

비만치료제, 황금빛 전망..."공급부족 풀렸다"★

비만치료제의 2030년까지 전 세계 연간 매출 추정치가 1년 전보다 50% 증가했다. 1년 전에는 2033년까지 최고 매출 추정치가 1천억 달러(136조5천억 원) 정도였지만, 이제는 1천500억 달러(204조8천억 원)로 크게 늘었다.로이터통신은 28일(현지시간) 투자은행 BMO 캐피털 마켓 등의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투자은행 리링크도 2032년까지 연간 매출이 1천580억 달러(215조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이들이 매출 전망치를 크게 올린 것은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Wegovy)와 일라이 릴리의 젭 바운드(Zepbound) 등 비만치료제를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다 늘어나는 수요만큼 덩달아 공급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아이큐비아의 최신 전망에 따르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지난해 전 세계 지출은 총 240억 달러(32조8천억 원)에 달했다. 또 이 수치는 2028년 1천310억 달러(179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 관련주:

- 。 [특징주] 펩트론, 1개월 지속형 비만·당뇨 치료제 라이선싱 텀시트 수령 소식에 강세
- 。 [특징주]넥스턴바이오, 유럽시총 1위 노보노디스크 생산시설 '5조원' 투자...협업 부각↑
- 。 [특징주] 드림씨아이에스, 노보노 GLP-1 협업 지투지바이오 지분 부각 '강세'
- [특징주] 인벤티지랩, 비만약 '위고비' 심혈관계질환 위험 감소 입증...'IVL3021' 전임상 30일 지속 부각
- ∘ 경쟁 확대되는 GLP-1 비만치료제, 한독 '속도전' 승부수 띄운다
- 한국비엔씨, GLP-1 비만치료제 'PAR201' 전세계 개발·상용화 권리 확보
- 일동제약, 당뇨·비만 타깃 신약물질 임상 1상 IND 승인
- ∘ [<u>특징주] 아이큐어, 자회사 비만·당뇨치료제 'GLP-1 경구용 나노제제' 국제 PCT 특허 출원 소식에</u> 강세
- 비만약 '속도전' 나선 한미약품...'잭폿' 터트릴까?
- 동아에스티, "뉴로보, 美 당뇨학회서 비만 신약후보 'DA-1726' 체중 감소 효과 발표"
- · [특징주]대봉엘에스, 비만치료제 시제품 개발 완료 소식에 강세
- [특징주] 애니젠, 130조 비만치료제 시장에 수혜주 '부각'

- [<u>특징주] 라파스, 美 FDA 승인 비만치료제 '세마글루티드' 마이크로니들 패치 임상 신청 소식에</u> 강세
- · <u>비만약 키우는 대원제약, 핵심 경</u>쟁력 '붙이는 위고비'
- ∘ [특징주]고바이오랩, 130조 비만 치료제 시장...GLP-1 유도체 글로벌 빅파마에 LO 추진 '강세'
- ∘ "비만 치료하는 '마이크로니들 패치' 내년 초 임상시작"

<u>퀀타매트릭스 "패혈증 균 잡는 항생제 바로 알려줘"</u>

퀀타매트릭스가 항균제 감수성 검사 의료기기인 디라스트(dRAST) 수출 확대에 본격 나선다. 50여 종의 항생제 중 패혈증 환자에게 맞는 약을 5~7시간 안에 알려주는 제품이다. 여기에 더해 애초에 핏속에 균이 있는지 없는지, 그 균이 무엇인지까지 알려주는 '원스톱' 의료기기도 3년 내 선보일 계획이다.권성훈 퀀타매트릭스 대표(사진)는 최근 "작년 4분기에만 유럽에서 디라스트를 공급하기로 한 병원이 30여 곳 추가됐다"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디라스트 허가를 받기 위한 현지 임상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Genentech: Press Releases | Tuesday, May 28, 2024

FDA, PIK3CA 돌연변이가 있는 진행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 HER2 음성 유방암에 대한 제넨텍의 이나볼리십에 우선심사 승인

Priority Review는 새로운 치료 옵션이 시급히 필요한 환자를 위한 이나볼리십 기반 요법의 동급 최고의 잠재력을 인정합니다.

INAVO120에 대한 추가 분석은 2024년 미국임상종양학회 연례회의에서 구두 초록 세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Merck's Potential \$3B EyeBio Acquisition Puts Drugmaker Back in Ophthalmology | BioSpace

머크의 잠재적 30억 달러 규모의 아이바이오 인수로 안과 분야에 다시 진출한 제약회사 머크는 수요일,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하고 안과 분야의 주요 업체로 다시 자리매김하기 위해 비상장 바이 오테크 기업인 아이바이오를 30억 달러 규모의 입찰을 통해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mgen Wins FDA Approval for First Biosimilar to AstraZeneca's Soliris | BioSpace

암젠, 아스트라제네카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 최초 FDA 승인 획득

화요일 FDA 승인 암젠의 Bkemv(에쿨리주맙-aeeb)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희귀질환 치료제 솔리리스(에쿨리주맙)에 대한 업계 최초의 상호 교환 가능한 바이오시밀러입니다.

"中서 뇌사 아닌 암환자에 세계 최초 돼지 간 이식...정상 기능" ★

중국에서 70대 간암 환자에게 유전자 변형 돼지 간을 이식하는 수술이 이뤄졌으며, 뇌사 상태가 아닌 살아있는 환자에게 돼지 간이 이식된 세계 최초 사례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안후이 의대병원 의료진은 지난 24일 중국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에 올린 글에서 상태가 심각한 71세 남성 간암 환자가 지난 17일 유전자가 편집된 514g의 돼지 간을 이식받았다고 밝혔다.

< 정치 >

주요일정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尹대통령, 전세사기법 등 4개 쟁점법안 국회에 재의요구

이재명 "민생지원금 차등지원 수용...'똑같이 지급' 주장 않겠다"

채상병 전 대대장 "해병대서 왕따...정신병원에 입원한다"

< M&A / 주요 공시 >

주요일정

5월 30일 산은-태영, '개선계획' 약정 체결

6월 11일 태영건설, 사채권자집회 소집

IPO

6월 3일 그리드위즈 공모청약(~4일)

6월 5일 라메디텍 공모청약(~7일)

6월 5일 디비금융스팩12호 공모청약(~7일)

6월 10일 한국스팩14호 공모청약(~11일)

6월 10일 미래에셋비전스팩5호 공모청약(~11일)

6월 10일 씨어스테크놀로지공모청약(~11일)

6월 11일 다원넥스뷰, 스팩합병 상장

6월 11일 에이치엠씨아이비스팩7호 공모청약(~12일)

6월 11일 KB스팩29호 공모청약(~12일)

6월 11일 이노그리드 공모청약(~12일)

6월 12일 엑셀세라퓨틱스 공모청약(~13일)

자연과환경, 240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자연과환경[043910]은 시설자금 등 240억원을 조달하고자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주당 746원에 신주 3천200만주(보통주)가 발행된다.

처음 유증 같네요.

이후 사측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뉴보텍처럼 관심 소외가 될지, 적극적 IR로 돌파하고 민심을 얻을지..

< 기타 >

주요일정

5월 30일 <u>2024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국제건강산업박람회(헬스&뷰티위</u> <u>크)(~31일)</u>